# 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44호 (4월 19일~4월25일)




노작 -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선군의 기치아래 평화도 통일도 있다

미국전투기도입결정 당장 철회되여야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6.15주간 편집부

# 6.15주간

6.15WEEKLY

제44호 (4.19~4.25)


03 **노작** -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06 **세기와 더불어** - 3. 리제순

09 **조국통일의 구성** - 희세의 명장

## 특집 - 선군의 기치아래 평화도 통일도 있다

10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11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13 명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군사의 영재
15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17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자랑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20 조 · 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문제와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과업
25 부시 정권의 6.15 공동선언 방해책동과 한(조선)민족의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
26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27 **한국민족민주전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29 **6.15공동선언 실현** - 통일연대 통일일꾼 수련회 열려

**주한미군철수**
30 미국전투기도입결정 당장 철회되여야
31 국방부 ≪F-15K≫ 최종 선정 결정
32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
33 네티즌들 울분, 국방부 홈페이지 마비
33 F-15K 선정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34 네티즌들, 반미축제 ≪오! 노 USA≫ 열기로
35 ≪4월 28일은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
35 ≪5.18시민법정에 미국을 세운다≫

**반통일세력단죄규탄**
36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
38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39 구시대인물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축출하자
40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말아야한다
41 조선외무성대변인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 참배를 규탄
41 고이즈미, 야스쿠니신사 참배
42 ≪신사 참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43 한총련 이적성과 21세기
44 ≪자유인으로 살것인가, 노예로 살것인가≫
45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라≫

**민중연대**
46 1300만이 하나가 되자
47 경찰청, 여성노조원 알몸수색 정당화

48 **대담** -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자

**연단**
49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자
50 반미는 노농운동의 주요과제

51 **계획** - ≪투쟁일정알림≫ 향후 FX공동행동 실천계획

52 **시** - 겨레사랑 선군길이여

53 **뉴스** - 주체91, 4/18 ~4/21






#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장백현 곰의골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 한 연설
1936년 10월 7일

# 김일성

동무들!

지난 2월에 열린 남호두회의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혁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남호두회의 방침에 따라 국경지대에로 진출하는 과정에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를 꾸렸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 민족역사에서 처음으로 전 민족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선포한지도 반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 하에서도 광범한 인민들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조직정치활동으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널리 해설 침투하였으며 장백, 무송을 비롯한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많이 내왔습니다. 이 과정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광범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도 마련하고 귀중한 정치활동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 방침에 따라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국경일대와 국내에로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을 튼튼히 마련하며 전체 인민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로 결속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압박과 약탈이 심해짐에 따라 혁명의 사회 계급적 지반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반동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비록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일제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는 데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광복에 대한 드높은 열정을 안고 반일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일제의 탄압과 약탈에 항거하여 파업과 태업, 쟁의와 같은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워 반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광활한 지역에 하부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압록강연안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려야 그에 의거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과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으며 전반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장백일대는 주민구성으로 보나 지대적 특성으로 보나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해 나가는데서 거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백일대는 조선사람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또한 국내와 잇닿아 있으므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넓은 지역과 국내깊이에로 오가면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에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해 나가는데서 압록강연안의 갑산지구와 신갈파를 중심으로 하는 삼수지구와 풍산지구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갑산지구는 백두산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지도를 제때에 받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그곳 인민들은 그전부터 혁명적 영향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갑산지구에는 우리와 연계를 맺기 위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갈파를 중심으로 하는 삼수지구와 풍산지구는 국내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제때에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부조선의 산업지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부전령산맥과 낭림산맥을 이용하여 동해안일대와 국내깊이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산, 혜산, 신갈파, 삼수, 풍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청진, 함흥, 원산, 나아가서 서울, 부산에 이르는 모든 도시들과 농어촌들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시급히 내와야 하겠습니다.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의 넓은 지역에도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동만일대를 비롯하여 만주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제놈들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에 와서 민족적 멸시와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받고 있으므로 반일감정이 강하며 조국광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화룡, 연길, 안도, 왕청, 훈춘, 임강, 몽강 등 조선사람이 살고 있는 만주의 넓은 지역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확대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워야 모든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통일적 지도하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상들과 지역들에 조직을 성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규약에 규정한대로 조국광복회의 하부말단조직으로서 분회를 내오고 그 위에 지회, 구회, 현회 등을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국광복회라고 할 수도 있고 민족해방동맹 또는 반일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밖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지도체계 하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우리 혁명의 기본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을 받아들여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은 우리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통일전선운동에서도 주되는 역량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조국광복회 조직에 노동자, 농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이 조국광복회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광복회 조직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는 소자산계급, 청년학생, 지식인과 민족주의자,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민족자본가들도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투쟁목적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 있는 것만큼 일제를 반대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야 합니다. 비록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주의자이건 종교인이건 관계없이 대담

하게 믿고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장백일대와 풍산, 갑산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는 것은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천도교중앙의 상층은 대부분이 지주, 자산계급 출신의 지식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로서 광범한 하층교인들에게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면서 일제와 결탁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층교인들도 일제의 악선전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층교인들은 상층과는 달리 조국의 광복과 민족적 독립에 대한 염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천도교중앙의 상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하층교인들에 대해서는 해설사업을 잘하여 조국광복회 조직에 적극 결속하여야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하층교인들 속에서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책동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지난날의 교인들의 애국투쟁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며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결속하는데서 아무런 파악도 없는 사람들을 망탕 받아들이거나 엄선한다고 하여 응당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편이고 누가 일제와 결탁한 원수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갈라 보고 반일적 요소를 가진 모든 애국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야 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제의 주구들을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광복회 조직에 이색분자들과 정탐분자들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려면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대중정치사업은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광범한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깊이 해설 침투하여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에는 전 조선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반일전에 총 매진함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체계를 전복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데 대한 기본과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은 광범한 인민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하는데서 거대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또한 광범한 인민들에게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반동적 본질과 교활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중정치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와 의식수준도 같지 않고 정치사업이 진행되는 환경과 실정도 같이 않은 조건에서 대중정치사업을 천편일률 식으로 하여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대중정치사업을 제기된 혁명임무와 조성된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설담화와 강연사업, 연극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강에 머물러있을 때에 연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공연하여 군중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연을 통하여 가혹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일제의 횡포한 만행을 실감 있게 보여주었으며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면 누구나 다 떨쳐나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소성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두 청년이 무대에 달려나와 자기들은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는 ≪자위단≫에 끌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당장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년들이 그에 호응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심금을 울리는 대중정치사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적을 제압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로의 진출에 황겁한 일제는 지금 수많은 관동군과 위만군 무력을 동원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지난 4월 ≪만주국치안숙정계획대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치안≫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무력을 조선인민혁명군≪토벌≫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의 혁명적 영향이 국내에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영활 한 군사활동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있은 대덕수, 소덕수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과 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혁명적 영향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일제군경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 지휘성원들은 제기된 혁명임무를 명심하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영활 한 유격전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정치 군사적 패배를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공산주의 대열의 사상적 순결성과 일치성을 보장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 것은 당 창건준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을 결속하는 것은 강력한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데서 필수적 요인으로 되는 동시에 당이 창건된 다음에도 당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잘하려면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일제와 싸우는 혁명군대일뿐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 투사이며 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입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이 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심중해야 하며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노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군중공작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맡겨진 임무 수행에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3. 리제순

##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4장 장백사람들



우리는 백두산 지구에 나오자마자 밀영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 한편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지대들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조국광복회망 건설의 첫 대상지로는 백두산을 직접 끼고 있는 장백지구와 국내의 갑산지구가 선정되었다.

조직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용의주도하게 수행해 나가자면 생명을 걸고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하였다.

...

이동학은 중대를 데리고 장백땅을 한바퀴 빙 돌다가 20도구 등판에서 청소년들의 아침체조를 지도하는 젊은 촌장을 만났다. 그 촌장이 바로 이제순이였고 아침체조를 하던 동네가 신흥촌이였다. 이제순은 촌장인 동시에 야학선생이였다. 신흥촌 사람들은 늙은이건 젊은이건 부녀자이건 할 것 없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네 촌장을 가리켜 우리 선생, 우리 선생 하면서 존경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볼 작정으로 그에게 중대가 2~3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촌장은 중대성원들이 다 지고도 남을만큼 엄청난 양의 식량을 잠깐사이에 모아놓고 밀영까지 져다 드리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말솜씨도 좋았지만 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아서 ≪보따지≫는 초면의 이 촌장에게 대뜸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후에 경솔하다는 비판은 좀 받더라도 이제순을 사령부에 직접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서 촌장이 짐을 져다 주겠다고 할 때 그 청을 얼른 받아들이였다.

촌장이 마을사람들을 회동해가지고 자진해서 쌀짐을 지고 갔다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보따지≫네 대원들은 이제순에게 포승을 지워 마치 큰 죄인이라도 호송해가는 것 같은 흉내를 내였다.

신흥촌을 떠난 식량운반대가 밀영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다. 밀영에서 20~30리 밖에 안되는 곳에 다달았을 때 이동학이 마을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순은 자기를 밀영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의 마음을 중떠보려고 일부러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비밀기지에 데리고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이제순은 이동학의 팔을 잡고 아주 기발한 제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놓고 한 번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떤가? 가령 목숨까지도 걸고 풀어내야 하는 일감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이동학은 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3일 동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버선 5켤레와 행전 5짝을 만들어오라고 하였다. 당신이 버선과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시간에 돌아오면 밀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요, 제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면 불합격이라고 하였다.

이제순은 그까짓거야 못해내겠는가,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신흥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시켜 하루밤사이에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5켤레의 버선과 5짝의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접선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

이제순은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중등 정도의 지식까지 소유한 성실한 노력가였다. 14살까지 머슴을 산뒤에 몇해동안 야학방에 다니었고 형한테서 국문을 배우고 장가를 간 다음에는 옥편을 끼고 다니면서 자습하였다. 학교물을 먹어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긴 이제순은 신흥촌에 오자 화전민의 자식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정열적인 계몽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제순은 고향에 있을 때 소년회와 청년동맹에 망라되어 몇해동안 조직생활을 하였다. 형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일제경찰들은 그에게도 감시를 붙이었다.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 속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이제순은 1932년초에 처가가 있는 갑산쪽으로 이주하였다. 그 무렵이 바로 박달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이 일대에서 애국계몽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제순은 그들과 함께 오풍동 일대에서 비밀독서회를 뭇고 새 사조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

비밀독서회 성원들은 수난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었으나 투쟁방략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기었다. 그들은 올바른 투쟁진로와 명망높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에 줄을 놓았다.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농조, 노조 출신의 선각자들과 주의자들을 더러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명백한 투쟁노선이나 전술이 없었다.

이제순의 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쏠리었다. 1934년경부터는 인민혁명군이 장백지방으로 나온다는 풍문이 국내에까지 전파되었다. 이제순은 훈춘쪽으로 가려던 본래의 계획을 버리고 장백현 20도구 천가덕으로 넘어왔다.

…

그는 국내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늘 농조조직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지도가 없이는 국내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물론 그 주장은 많은 동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혁명군의 줄을 어떻게 찾겠는가고 하면서 그 주장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라도 유격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백현 신흥촌으로 단호히 이주하였다.

그는 국내인사들 가운데서 해외의 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의 불가분리성과 일원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리공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군과의 연계를 성사시킨 다음에는 우리의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생명까지 바친 선각자, 투사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

어쨌든 이제순은 만사람이 반할만한 특색있는 성격의 사나이였다. 그는 장백을 혁명화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적임자였다. 필요한 지식과 방법만 배워주면 이제순은 장차 훌륭한 지하조직활동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장백지구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자는 참군을 열망하였다.

이제순은 우리가 싸움을 하려간 사이 참군준비를 좀 했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입대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성화를 먹이었다.

나는 입대시험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지≫동무가 동무를 시험쳐보고 데려왔으니 그것으로 입대자격증은 이미 받은 셈입니다. 동무가 정 요구하면 아무때라도 유격대에 받아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혁명에 더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순은 얼떨떨해하였다.

≪다른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일개의 사격선수로 출전하기보다 큼직한 조직을 무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군을 이기라고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직을 뭇는다는 겁니까?≫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동무가 살고 있은 신흥촌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의 도처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꾸리는 일입니다.≫

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가에 대하여 역점을 찍어 설명해주었다.

총명한 이제순은 그렇다면 지하조직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 자신이 안간다고 말하였다.

≪그건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타고난 혁명가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나 혁명할 생각을 가지고 실천투쟁 속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가며 경험을 쌓으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순을 위한 단독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의 주제는 조선혁명의 노선과 성격, 전략전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강의는 내가 담당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에 대한 해설강의, 국제당사 강의는 이동백이 해주었다. 단 한명의 수강생을 위하여 여러명의 유능한 강사들이 번갈아 출연해가며 그처럼 알심있게 강습을 진행한 실례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그때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강습을 마치고 밀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순은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저는 쌀 한말을 지고 왔다가 몇 섬이나 되는 혁명적 양식을 지고 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사업분공을 주십시오. 지역을 하나 떼서 맡겨주면 그 지역안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모든 마을마다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내오겠습니다.≫

우리는 장백현 상강구 지역을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이제순은 자기에게 신임장을 한 장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도장이 찍힌 신임장만 내대면 군중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많이 묶어 세울 수 있고 또 일도 상당히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요구대로 신임장을 써주고 나의 이름밑에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이제순은 그 자그마한 증명서를 받아들자 반년안으로 상강구 지역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였다. 그 장담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후의 그의 투쟁실적이 증명해주었다.

…

이제순은 적들의 신임을 능숙하게 이용해가며 그해 가을 김병철, 이주관, 이삼덕과 함께 조국광복회 신흥촌 지회를 조직하였

다. 이 지회는 백두산 서남쪽 턱밑에서 생겨난 최초의 조국광복회 조직이였다.

이때부터 이제순은 촌장의 자리를 이삼덕에게 넘겨주고 권영벽과 함께 장백현 상강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장백현을 편의상 세 개의 지구 즉 상강구, 중강구, 하강구로 구분하고 활동하였으며 상강구는 다시 상방면, 중방면, 하방면으로 나누고 활동하였다. 이제순은 신흥촌에서 지회를 내온데 뒤이어 주경동, 약수동, 대사동, 평강덕에도 조국광복회 지회들을 조직하였다.

지회산하에는 또한 많은 분회들을 두었으며 반일청년동맹과 부녀회, 아동단과 같은 외곽단체들을 꾸려 각계각층을 폭넓게 결속시키였다.

불과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이제순은 상강구 전지역을 조밀한 지하조직망으로 뒤덮어놓았다.

백두산밀영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마을들에는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그물코처럼 촘촘히 들어배기였다. 조국광복회 조직은 현대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 속에서도 침투되었으며 지어는 만주국의 관공서들과 경찰기관들, 정안군부대들에도 뿌리를 내리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을 두었다. 조국광복회의 외곽단체들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집결되었다. 조국광복회의 매개 지회는 생산유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사시 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강력한 밑천으로 되었다.

장백지구에서의 조국광복회 조직들의 확산이 어찌나 빠르게 진척되었던지 우리가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를 내오고 이제순에게 총책임을 지우던 1937년초에 이르러서는 장백현의 전지역이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을≫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촌락의 구장, 촌장의 직책들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척 하였으나 안속으로는 우리 일을 하였다.

…

장백이 우리 세상으로 되고 장백사람들이 우리 사람들로 된 것은 백두산 근거지 창설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반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장백과 그 주변을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순과 같이 충실하고 과감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의 덕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순은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태어난 민중의 참된 아들, 참된 충복이었으며 민중의 해방을 위해 육탄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온 훌륭한 조선의 애국자,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

이제순이 높은 조직적 수완과 임기응변의 묘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는 신흥촌에서 5.1절 시위를 조직하였다. 대낮에 그것도 만인의 주시속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벌이자면 적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럴듯한 계책이 필요하였다. 이제순은 여우잡이를 구실로 각 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시위대열은 붉은기를 들고 한줄로 늘어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압록강이 굽어보이는 산능선을 따라 20도구 남석부락까지 행진해갔다. 시위군중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두간두간 다른 구호들도 불렀다.

그날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희한한 시위를 통쾌한 심정으로 구경하였다. 강건너 가림천 주재소와 국경수비대의 군경들은 혁명군이 내습한 줄로 알고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소요의 진상이 무엇인지 감히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적들은 시위가 끝나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사민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다음에야 장백땅에 건너와서 무슨 일로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와 밀려다니는가고 물었다.

시위군중들은 여우잡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우잡이를 하는데 붉은기는 왜 들고 다니는거야?≫

경찰들이 물었다.

≪여우는 붉은색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를 들었습지요.≫

시위자들은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경찰들을 속여넘기였다. 사실 붉은기는 여우잡이에도 필요했고 시위에도 필요하였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치달아오르던 1937년 당시 수백명의 집단이 백주에 붉은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반일반만시위라는 것을 일만군경들이 다같이 감촉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이것은 뛰어난 지략과 대담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안해낼 수 없는 큰 모험이었다. 우리가 보천보를 친 후 이제순은 신흥촌 부녀회 성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투결과를 알아내고 인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주었다. 우리는 이제순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창발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포치한 사업이었다.

이 두가지 사실을 놓고보더라도 우리는 이제순이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방법론을 가진 재능있는 일군이며 열정적인 사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혁명과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시대적 사명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많이 썩인 사람이었다. 그런 진통과정이 부단하게 되풀이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짧은 기간에 그처럼 철저하게 장백땅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드는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장백의 이름없는 산촌에서 야학선생과 촌장으로 있던 이제순은 항일혁명에 꽃다운 한생을 바친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투사였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혁명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생활과 투쟁 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견실하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불타는 사람이 옳은 지도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혁명가로 된다는 것은 혁명의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선차시한다. 그것은 이 사상혁명이야말로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강의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요람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제순이 세번째인가 네번째인가 우리 밀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국광복회 조직을 위해 바친 그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두손을 내흔들며 난색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수완이나 수고덕이 아닙니다. 그 신임장이 이주익면장 같은 사람도 대번에 광복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면장은 그 신임장을 보더니 김장군이 회장이라면 자기도 그 회원이 되게 해 달라질 않겠습니까. 장백사람들이 또한 애국열도가 높은 사람들이지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순은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대성산 혁명열사릉에서 자그마한 반신상의 겸허한 모습으로 후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권영벽, 이동걸, 지태환도 나란히 서있다.

# 희세의 명장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지 10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4월 20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지 10돌이 되는 날인데요. 이날을 맞으며 우리 민중은 물론 해내외 7천만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끝없이 숭앙해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규** :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천출위인을 원수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적 존엄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은 세인들이 우러러 경모하며 따르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군사의 영재이시며 천출명장이신데요. 일찍부터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백전백승의 전략전술로 조선인민군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풍모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강철의 명장이시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하신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셨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풍모 그대로이죠.

**김현규** :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무적강병으로 키워내신 영장이신데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로 하여금 수령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라는 관점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조국에 열렬한 사랑을 지니도록 교양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세상에서 유일한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사회자** : 그래서 이북 민중들과 군인들은 물론 7천만 겨레가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자긍심을 안고 그분을 끝없이 경모하고 있죠.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정 인류사에 유일무이한 군사의 영재이신데요, 우리 겨레는 물론 세인들도 한결같이 경애하는 그분을 명장중의 명장, 하늘이 낸 명장이시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 서방의 한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께서는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최전방 초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찾아가시며 그들의 생활과 직무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봐주고 계십니다. **김정일**원수는 명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모든 품격, 문무와 덕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희세의 명장이시다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사회자** : 인류사는 이름 떨친 명장들과 영웅들을 수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재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없는 문무와 덕을 다같이 겸비하신 명장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뿐이십니다.

**김현규** : 인류가 높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영수, 비범한 군사예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부시행정부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제압하시며 우리 민족과 전인류가 불행과 재난에 빠질세라 보살피고 계십니다.

**사회자** :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사적 예지는 아무리 착잡한 군사정치상황하에서도 순간에 천리앞길을 내다보고 방략을 세워나가시는 천재적 예지이며 그분의 담력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나가시는 필승의 담력이며 그분의 지략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연속적인 승리를 마련해 나가시는 백전백승의 지략이시죠.

**김현규** : 인류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들에서는 많은 명장들이 자기의 지략과 용맹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만능의 명장으로써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춘 전설적 위인은 동서고금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어난 지략으로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이익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역사가 알지 못하는 희세의 천출명장, 전설적 위인으로 높이 칭송받고 계십니다.

**사회자** : 장군님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서울에서는 퇴역장성 이정권씨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했어요.

≪**김정일**장군께서는 지난 시기의 명장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전설적 명장이신 **김일성**대장군과 빨찌산의 여장군이신 **김정숙**여사의 슬하에서 성장하심은 분명 천출명장의 역사적 출현이시었다. 바로 장군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어리신 시절에 준장군으로, 미래의 총사령관으로 칭송되셨던 것이다.≫

**김현규** : 백전의 기상과 슬기, 담력을 지니시고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을 쥐락펴락하시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남 민중의 다함없는 존경과 숭배심은 열화와 같이 나날이 더욱 끓어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고로 우리 겨레는 희세의 영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원수로, 최고사령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분의 선군혁명영도로 해서 부시행정부의 핵전쟁위험을 짓부수며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세계만방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이북의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창건 70주년을 맞이한다.

이 행성위에 2백여의 나라가 있고 또 나라마다 자기 특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같이 창군의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장장 70여년의 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불패의 강군은 없다.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전통은 민족수난의 시기 백두산에서 광복성전의 첫 총성을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자기의 참다운 민족군대를 갈망해 오던 겨레의 숙망을 실현한 일대 경사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역사적 사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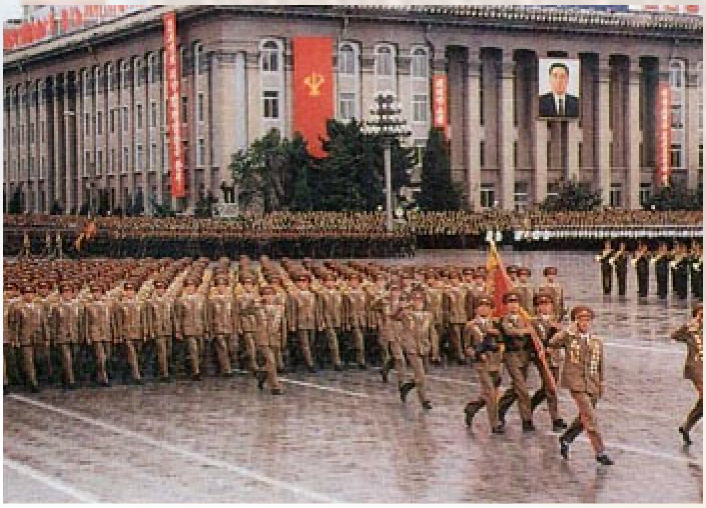
항일대전 초엽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그 ≪일속≫은 창해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창해를 뒤집고 솟구쳐올라 그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과시했다.

당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커다란 위험을 내포한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극명하게 실증해 준다.

정녕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되었으며 식민지민족해방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에게는 회생의 힘을 주는 마음의 기둥으로 되었다.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오직 **김일성**주석님만 믿고 그분의 영도밑에 일제의 백만대군과 대전을 벌여 온 조선인민혁명군은 1932년 4월25일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쳐오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승계하여 8.15광복이후 정예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에서 미국을 수괴로 하는 15개 추종국가군대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2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의 승리, 이것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웅서사시로 아로 새겨져 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다.

백두산 대장군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전법과 탁월한 영군술, 백전백승의 전략과 무비의 담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정신무장되었으며 위력한 공격수단과 철벽의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의 무력으로 자랑떨치고 있다.

이미 세계적 판도에서 입증된 바이지만 인민군대의 위력은 참으로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94년 12월 최신예로 자랑하던 정찰헬기를 이북영공에 침입시켰다가 인민군의 휴대무기에 맞아 단방에 격추되었던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대형정찰기 ≪EC-121≫과 ≪CH-47≫의 격추, 무장첩보선 ≪푸에블로≫호 나포, ≪경호함-56≫호의 격침 등 미국은 여러 기회에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을 이미 맞보았다.

또한 여러 계기를 통해 사상의 강군, 결사의 각오를 가진 무적필승의 자폭용사들의 집단으로 철저히 준비된 인민군대의 내면세계도 접해 보았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이북땅 곳곳마다에 세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창조물들과 기념물들을 일떠세웠다.

미군에 통수권을 빼앗긴 ≪국군≫의 치욕에 찬 용병의 행적을 더듬을 때 조선인민군의 위상은 더욱더 빛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장군자, 영도자가 있어야 그 군대의 민족적 사명감이 투철한 것이며 그 위력이 막강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심으로써 처음부터 애국애족의 뿌리에서 성장했을 뿐아니라 오늘도 역시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민중의 군대, 민족의 군대, 자주의 수호자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70년 역사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의지를 신념으로 삼고 백두의 전통을 초석으로 삼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외래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을 굳건히 수호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칠 것이다.

#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차명식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올해 4월25일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70년의 역사는 위대한 영장을 조선인민군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들의 선군사상, 선군영도로 백승만을 떨쳐 온 영광의 연대기로 찬란히 수놓아져 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2년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당시 반일인민유격대)을 창건하셨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주체혁명무력의 출현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시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를 무장으로써만 격멸할 수 있다는 선군사상을 제시하시고 군대를 창건하시어 그 강화발전을 현명하게 영도하셨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주체형의 혁명무력이었고 선진적인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어 조국광복과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참다운 민족의 군대, 민중의 군대였다.

천출위인 백두의 영장이신 주석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투쟁을 벌여 일제대군을 격멸소탕하고 1945년 8월15일 마침내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했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광복이후 이북에서 새 사회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영도하실 때부터 언제나 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자위적 군사력으로 강화된 조선인민군의 정규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구한 항일대전에서 불패의 위용을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시기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15개 국추종세력과 반동들의 침략을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쳤다.

이처럼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 두≪강적≫을 쳐부셨을 뿐아니라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맞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왔다.

총대중시, 군사중시에 의해 계승되는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통찰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백



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셨다. 주석님께서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의해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영도를 군민이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인민군이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된 역사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불멸의 업적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선군사상을 받들고 조국광복위업에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었다. 그리고 광복이후에는 건군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전통인 수령결사옹위의 최고귀감도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쳐 온 인민군의 전투적 행로에도 **김정숙**여사의 거룩한 자국이 역력히 새겨져 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 백두광명성을 안아올리시어 주체의 선군전통을 굿굿이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선군혁명의 길에서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총대를 거머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인민군의 강화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40성상을 헤아리는 위대한 영도사는 총대를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건설, 경제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를 열어오신 영광찬 연대기이다.

특히 지난 7년간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실록은 독창적인 선군영도, 선군정치를 창조하여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5년 설날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어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하시고 그 길로 다박솔 중대를 찾으시어 역사적인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거룩한 첫 자국을 새기시었다. 그분께서는 전선과 후방, 외진 섬의 수많은 군부대에 대한 시찰과 무력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이 과정에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규정하시고 온 민중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정치방식, 선군정치방식을 정립하시었다.

이러한 선군영도,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이북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결속짓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이다.

오늘 미국의 부시호전세력은 ≪악의 축≫,≪핵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강군, 조선인민군의 위력 앞에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대한 영장의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은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이북에서 민족의 자주권은 굳건히 수호되고 있는 것이다.

# 명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군사의 영재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인류는 오랜세월 군대역사와 전쟁사에 수많은 전략가들과 명장들을 기록했다.

그러나 명장은 역사가들의 대서특필로 되는 것도 아니요 싸움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명실공히 명장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정의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공적을 세운 장군,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켜낸 민중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장군을 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장이 지녀야 할 기질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열화와 같은 열정과 인덕이라고 본다. 다시말해 사상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며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장군을 명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만인이 명장으로 경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지난 시기 명장들이 지닐 수 없었던 출중한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종합적으로 체현하신 명장중의 천하제일 명장이시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명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풍모인 군사적 지략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니고 계신다.

그분이 지니신 군사적 지략은 지난 시기 지략으로 이름난 명장들의 지략과 비교할 수 없는 심원한 예지와 선견지명에 기초한 과학적이고도 천재적인 지략이다.

미국이 이 땅에서 ≪팀스피리트83≫합동군사훈련을 벌이던 때의 일이라고 한다.

미군부는 이북의 후방지역에 그 무슨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육전대≫투하훈련으로 이 군사훈련의 절정을 장식하려 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적들의 ≪육전대≫투하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월등하게 진행할데 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지점을 찍어 주시였다.

드디어 적들이 ≪육전대≫투하훈련을 하는 날 인민군대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는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날새 한마리도 빠져 나갈 수 없는 맹렬한 집중화력으로 ≪육전대≫소멸훈련을 벌였다.

그때 미군측은 이북의 이 무자비한 타격훈련과정을 정찰위성을 통해 몇장면 촬영했는데 자기들이 가상했던 지점과 이북이 대응훈련을 한 지점이 신통히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절초풍했다 한다.

이것은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지니신 탁월한 군사적 지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 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은 강철의 의지와 무적의 장군다운 담력과 배짱으로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



을 견결히 수호해 나가시는 위대한 명장이시다.

자주권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은 명장의 의지와 담력, 배짱에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의지는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이며 그분의 담력과 배짱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발굽아래로 내려다 보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강인담대한 기상이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닮으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최고수위에 계시기에 이북의 자주권은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1994년 12월 미군은 정찰헬기를 이북의 영공에 침입시켰다가 인민군사병의 휴대무기에 맞아 단방에 격추되고 말았다.

이것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침해를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인민군군인의 단호한 결단이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러한 사례는 지난 시기 미국의 대형정찰기 ≪EC—121≫, 무장헬기 ≪H—47≫의 격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 이남군함 ≪경호함 56≫호의 격침, ≪판문점사건≫ 등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숭고한 인간애와 인덕을 지니신 걸출한 명장이시다.

위대한 명장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어야 한다. 인덕으로 군대를 하나로 묶어 세우고 뜨거운 인간애로 그들을 불러 일으키는 장군이 명장중의 명장이다.

역사에는 이름난 명장들은 많았어도 인덕을 겸비한 명장은 없었다.

명장의 위엄과 뛰어난 군사적 자질, 군인대중을 한품에 안는 무한한 도량과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닌 천하명장은 오직 **김정일**최고사령관 뿐이시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인덕은 군인들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숭고한 믿음이며 그들을 위해서는 하룻밤에도 천리길을 달려가시고 돌위에도 꽃을 피우시는 열화같은 사랑이다.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로 기쁜 때라고 하시며 그들과 야전식사도 함께 하시고 소박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김정일**최고사령관이시다.

군인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그 뜨거운 인정미는 이 세상의 모든 열원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세계이다.

지금 이북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을 생의 어버이로, 군복무의 스승으로 따르고 있으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는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은 명장의 풍모를 가장 완벽하게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시다.

온 민족과 함께 세계 진보적 인류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 부터자주권을 수호하고 계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희세의 천출명장으로 격찬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은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이북은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펼치게 되었다.

민족최대 국상이후 7년간의 역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영도,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우리 민족의 안녕을 지켜낸 사회주의 수호전의 7년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기적의 7년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연합세력들은 군사적인 공세를 취하는 한편 이북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특별사찰≫소동을 일으켰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모한 군사정치적 도발과 압력, 전쟁책동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난국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강화된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이북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에서 봉쇄를 강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경제봉쇄 속에서 몇해째 들이닥친 큰물과 해일, 가뭄 등 파국적인 자연재해까지 입게 되었다. 혹심한 식량난, 연료난, 동력난 등이 잇달아 겹쳐 들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렬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 피눈물의 몽상 3년간과 여러해째 계속된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이북은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열백번도 무너지고 말았을 그런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단신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독창적인 특유의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사회주의조국을 고수하고 민족을 지켜주시며 강성대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4년 11월 불후의 고전적 명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견인력, 활력을 논증하시며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어버이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불변의 의지를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과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이북군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현지지도하신 단위수는 1,300여개이며 그중 국방부분이 814개 단위라는 사실, 장군님께서 그 나날 577일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1만 6,694Km를 이어 가신 사실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으신 높고 험한 산발들은 그 얼마인지 다 헤아릴 수 없다.

장구한 인류역사는 한나라 영도자가 몇해 어간에 그렇듯 험난하고 머나먼 전선시찰길을 이어 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영도의 길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만이 걸으실 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 헌신의 길로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 앞에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던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쳐 국민이 그 정신, 그 기풍으로 산악같이 일떠서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이북의 군민은 준엄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기를 막아주었고 이 땅의 우리 민중을 핵참화 속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이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삼천리강토를 수호하고 온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선군영도가 안아 온 기적을 두고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방송 V.O.A까지도 ≪선군정치로 미국의 멸망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유일한 나라는 이북이며 선군정치로 하여 사회주의로 강성할 나라도 이북≫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의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 수도 잴 수도 없다는데 워싱턴의 비극이 있다≫고 평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 선군영도와 같은 독창적인 특유의 사회주의정치방식을 창시, 완성하시어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신 만고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인류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다.



#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자랑

## 구국의 소리 논설 주체91, 4월 15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는 속에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수호하며 참다운 민족군으로써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70성상의 역사는 백두산장군들의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을 떨치며 민족자주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해온 자랑찬 역사입니다.

일찍이 변혁운동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무력창설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탁월한 군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21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셨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유구 반만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자신의 참다운 민족군을 가지게 되었고 15성상의 항일대전에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혁위업수행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광복후에도 정규무력건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심으로써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전진을 위한 정치군사적 담보를 확고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 만방에 민족의 위상을 높이 떨쳤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전후에도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의 군사노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시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주석님의 선견지명한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군은 변혁운동의 준엄한 연대들마다 온갖 원수의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습니다.

참으로 선군혁명영도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어 두차례 반제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자주시대의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수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불멸의 공적은 나라의 통일과 반제자주를 위한 우리 민중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사에 기리 빛을 뿌릴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의 군건설위업과 선군혁명영도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총대를 거머쥐시고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주석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최근 수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시어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총대철학을 제시하시고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근 40성상을 헤아리시는 그분의 선군영도사가 있기에 오늘날 조선인민군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결사옹위할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조국통일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참다운 민족군으로써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70년전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참다운 민족의 수호자, 민족번영의 담보자로써의 조선인민군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기쁨이고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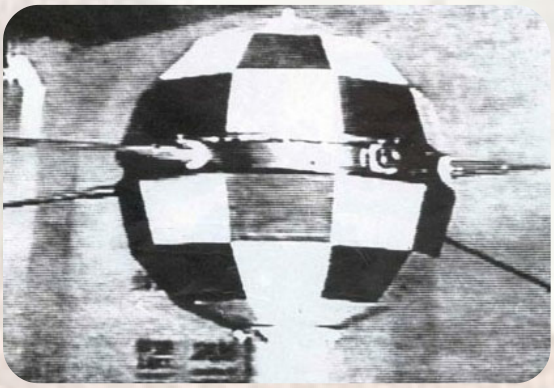
하기에 오늘 우리 민족 모두는 백두의 천출명장들의 선군영도하에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조선인민군을 세계 제일의 강군으로 끝없이 격찬하고 있으며 창건절을 맞는 조선인민군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각계 애국민중 모두가 위대한 영장을 모시고 민족자주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과 같은 **의 참다운 민족군이 있는 커다란 자긍심을 안고 자주통일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조국통일성업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섬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통일조국의 새날을 안아와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 조선신보 주체87(1998)년



1998년 8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나라에서 처음되는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때부터 오늘까지사이에 공화국측에서는 일본매스콤에 소개 안된 위성발사에 관한 수많은 정보,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위성발사에 직접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증언, 담화들이다.

아래에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미국, 남조선 등의 관련자료에 기초하여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 무수단리의 우주로케트기지**

조선북부의 공업도시 - 김책시에서 동북동에 60키로메터쯤 떨어진곳에 위치하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는 조선동해와 면한 고요한 해안가이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무수단리는 우주로케트를 발사하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여기에는 발사대, 지령소, 관측소 등이 늘어서있다. 또한 평양시, 황해북도를 비롯한 몇군데에도 우주로케트의 관측소가 설치되였다.

미국은 이미 자기의 정찰위성에서 공화국의 우주로케트발사기지를 탐지하고있었다는것이 예측된다.

8월 31일 오후 12시 7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무수단리에서 발사되였다. 당초 발사시간은 관측에 유리한 저녁시간에 설정되여있었다. 그런데 발사당일날인 31일의 기상예보를 보면 낮시간에는 개이고 고공풍이 없지만 저녁녘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것이라는것이였다. 발사준비가 이미 빈틈없이 되여있었고 낮에 발사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성을 감시할수 있었기때문에 시간을 앞당겨 위성을 낮에 쏴올렸던것이다.

굉음을 울리며 날아오르는 로케트를 지켜보는 권동화박사, 한해철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발사성공을 확신하면서 크나큰 기쁨에 휩싸였다.

위성운반로케트는 최신식인 3계단식이며 제1계단과 제2계단은 액체연료발동기(다섯종류의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연료), 제3계단은 고체연료를 가진 구형발동기와 제어용 소형발동기(3기)를 싣고있었다. 고성능의 액체로케트(액체연료와 산화제)는 우주로케트개발의 주류이다. 제1계단로케트에는 조종장치가, 제2계단로케트에는 가속기, 조종장치, 콤퓨터 등의 관성유도장치, 무선자폭장치가 설치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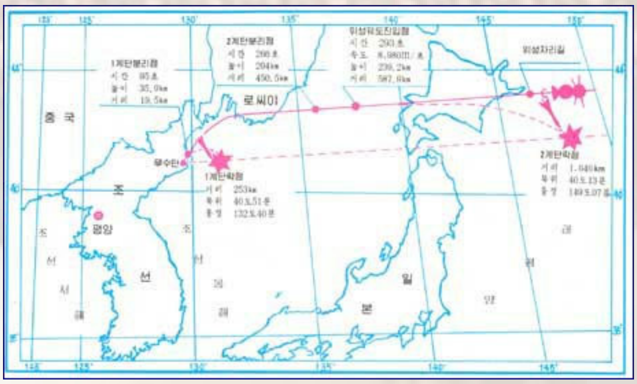
**- 발사방향의 설정**

일반적으로 우주로케트의 발사는 지구의 자전을 리용하여 동쪽을 향하여 정한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적도우의 지표면에서 시속 1670키로메터(초속 465메터)이다. 적도에서 진동으로 로케트를 쏘아올리면 발사가속도를 6%쯤 더 얻을수 있다. 때문에 로케트를 발사하는데서 가장 리상적인 지점은 적도의 바로우인것이다.

이번에 설정한 발사 방위와 방향은 과학기술적조건을 면밀이 분석한 토대우에서 국제법에 기초하여 주변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최대한 존중한 결과이다.

가장 리상적인 우주로케트의 발사방향각도는 방위 90도인 진동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령토상공을 경유하고 분리된 제2계단이 일본령해 가까운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보다 안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사방위를 86도로 수정하고 조선동해를 횡단하여 쯔가루해협의 상공을 넘어 태평양의 공해상을 날아가도록 하였다. 만일 로케트가 비행도중에 예정된 자리에서 탈선되는 경우에도 안전지대에로 유도하여 자체폭파할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여있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키로메터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2도 40분의 조선동해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646키로메터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발사 293초후, 12시 11분 53초) 제1우주속도(초속 7.8키로메터)를 넘어 초속 8.98키로메터의 속도로





위성본체를 자기 궤도에 진입시켰다.

우주로케트와 탄도미싸일의 궤도는 서로 차이난다. 우주로케트는 3계단발동기에 점화하는것과 동시에 지구걸면과 수평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궤도를 돈다. 그러나 탄도미싸일경우는 마지막구간에서 지구수평면에 대하여 40~45도의 자세로 대기권에 재돌입한다.

**-순회궤도를 돌다**

현재 ≪광명성1호≫는 지구에서 근지점 218.82키로메터, 원지점 6978.2키로메터로 되는 타원형의 순회궤도로 지구를 돌고있다. 그 주기는 165분 6초, 하루에 지구를 약 8.7바퀴 돈다. 9월 13일 오전 8시 24분부터 11시 17사이에 100바퀴째를 돌고 공화국의 상공 220키로지점을 통과하여 하와이북부, 칠레, 아르헨띠나, 나미비아, 앙골라, 꽁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중국의 상공을 지났다.

10월 5일경에 다시 공화국의 상공을 지날 때 만일 밤하늘이 개였다면 위성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다고 한다. (1바퀴째 - 8월 31일 오후 3시 1분 조선남해, 7바퀴째 - 오전 10시 8분 남조선, 15바퀴째 9월 2일 오전 10시 54분 조선중부, 23바퀴째 - 9월 3일 오전 11시 43분 조선북부의 상공을 각각 통과)

≪광명성1호≫는 음악선률과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를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하고있다. 또한 위성에서는 온도와 압력, 전원상태 등의 탐측자료가 보내오고있다. 9월 7일 야밤, 텔레비아사히는 평양에서 엿들은 음악과 모르스신호소리를 방송하였다. 위성은 실험용이므로 태양전지를 쓰지않고 바테리를 싣고있다. 음악과 전신부호는 발사후 9일간으로 끊어졌으며 위성본체의 수명은 약 2년이다.

공화국에서는 9월 4일에 처음으로 위성발사성공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위성발사의 성공여부와 제반 측정자료를 수집종합한 다음 심중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

일반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에는 10여년의 세월과 정식발사를 앞두고 30번쯤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기상관측과 위성통신을 목적으로 한 우주시스템공학의 연구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벌려왔다. 94년에 열린 인공지구위성의 원곽조종에 관한 국제심포쥼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우리 공화국도 참가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벌써 6년전에 ≪광명성1호≫본체와 운반로케트의 개발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90년대초에는 발사준비를 완료하고있었다. 그동안 국제정세의 격변과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대한 국상기간(3년간)을 고려하여 발사시기를 기다리고있었으나 국경절 50돐을 축하하여 드디여 발사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이번 발사목적은 ①인공위성의 정확한 궤도진입 ②다계단운반로케트의 구조공학적설계와 조종기술 완비 ③우주공간환경을 연구하고 우주공간환경속에서 전자장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가를 검증 ④운반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인류공동의 우주평화리용의 한몫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국산의 기상위성, 통신위성, 자원탐사위성을 쏴올린것과 그로 하여 농업발전, 석유개발, 정보통신의 새 가능성을 열어나가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련속되는 이상기후를 관측하는데서도 기다리고기다린 인공위성발사였다.

98년 1월현재 세계의 인공지구위성수(과학, 실용, 군사)는 4939개를 넘으며 주 3번의 속도로 이 지구상 어딘가의 발사장에서 발사되고있다.

**-세계에서 9번째가 되는 국산위성발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발사한 9번째의 나라이다. 지금까지 ①구쏘련(57년 10월 스프토니크1호), ②미국(58년 1월 에크스프롤라호, 뉴피터**C**로케트), ③프랑스(65년 2월 아스테리크**A**호, 디아만**A**로케트), ④일본(70년 2월 오오스미, 람다4**S**형로케트), ⑤중국(70년 4월 동방홍, 장정1형로케트), ⑥영국(71년 10월 프로스페로위성, 호주에서 발사), ⑦인도(80년 로히니위성), ⑧이스라엘(88년)등에서 각각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이번에 로케트추진발동기(액체연료발동기, 고체연료용구형발동기)와 조종씨스템, 쎈서, 연료와 금속, 비금속재료, 발사대설비, 조종기술, 다계단로케트의 분리기술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자기 나라기술로 만들어낸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있다. 특히 시발도 없이 단 한번의 발사로 성공시킨것은 특출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로씨야우주국 미로크부국장은 ≪로케트기술 그자체는 대단히 높고 놀랄만한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지원요청도 없었다.≫(이따르 - 따스통신 9월 5일)고 말하고있다. 남조선의 공학우주연구소의 유장수박사는 ≪≪북한≫의 위성, 로케트기술력이 세계 10위에 들어갈만하게 발전했다. 3계단식로케트는 가장 발전한 형태이며 쏘련의 스프트니크발사와 맞먹는 과학기술적 충격이다. 제1계단이 동해에 떨어지고 제2계단이 태평양에 떨어졌다면 미싸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위성발사로케트이다.≫(중앙일보 9월 5일)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과학자들속에서는 지금 ≪북한우주개발의 중심인물, 천재우주과학자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한겨레인터네트 9월 12일)

또한 공화국이 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데 대하여 로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꾸바, 웽그리아, 뻬루, 적도기네, 탄자니아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은 ≪세계의 중대 소식≫, ≪아세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칭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 조 · 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문제와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과업

## (1) 20세기말 북(조선)이 전개한 반제투쟁과 그 투쟁에서의 승리

20세기의 한(조선)반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투쟁, 민족해방혁명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전개된 무대였다. 20세기의 인류사가 자주의 길로 진보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책동 앞에서 좌절하느냐 하는 세계사의 문제는 20세기말에 이르러 한(조선)반도에서 역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고 사회주의 대국이라는 중국은 반제자주노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던 국제정세는 세계 반제진영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였다.

사회주의와의 냉전에서 승리하였다고 떠들어대던 미국은 ≪중동의 화약고≫에 침략의 불을 질렀다.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삼은 그 전쟁에서 미국은 자기의 추종국가들에게 파병과 전비부담을 요구했고 그 요구대로 되었다. 중동의 군사강국이라고 했던 이라크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미국이 중동에서 도발한 제1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곧 한(조선)반도에서 제2차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마무리한 시점이었던 1991년에 이미 한(조선)반도에서 제2차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군사전략은 중동과 한(조선)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겠다는 이른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이었다. 그 군사전략은 1991년 당시 국방장관 딕 체니(현 부통령)와 당시 합참의장 콜린 파월(현 국무장관)이 주도하여 작성한 군사전략검토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입안되었다.

1993년에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때 한 개의 전쟁에 전쟁수행력을 집중시키되 다른 한 개의 전쟁은 정체전선으로 묶어두겠다는 이른바 ≪윈-홀드-윈 전략(Win-Hold-Win Strategy)≫이라는 수정된 군사전략을 내놓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윈-윈 전략≫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그만큼 한(조선)반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들떠있었다.

≪윈-윈 전략≫은 북(조선)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였을 때, 한 개의 전선에 4-5개의 지상군 사단, 4-5개의 해병여단, 10개의 전투비행단, 50대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5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의 가공할 전쟁전략이었다. 그 전쟁전략을 한(조선)반도에서 수행하기 위한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1991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5027 작전계획≫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연구기관인 미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와 미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합동으로 한(조선)반도의 침략전쟁 시나리오인 ≪5027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북(조선)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과제는 전쟁을 도발할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했던 구실이 이라크의 침공을 받은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 한(조선)반도에서 제2차 전쟁을 도발하는 구실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었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던 그 시기에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한(조선)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고 더 나아가 세계 반제진영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역사의 준엄한 시기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었다. 클린턴 정권은 1993년에 집권하자마자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구실로 내걸고 북(조선)에게 덤벼들었다. 전면전의 칼을 뽑아든 클린턴 정권은 북(조선)을 위협하면서 굴복을 요구하였다. 클린턴 정권의 집권기간 8년 동안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첨예한 대립과 치열한 투쟁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이 8년 전쟁을 미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도발된 ≪총포소리 없는 조·미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은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이 한(조선)반도를 무대로 하여 벌였던 20세기 최후의 대결이었다.

북(조선)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의 책동과 공세에 맞서서 치열한 반제투쟁을 전개하는 동안에 지원을 받을 곳도 지원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제국주의진영의 위세에 기가 질린 반제진영의 여러 나라들과 진보적 인류는 북(조선)이 그 대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정치적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반제전선의 간고한 투쟁에서 반제진영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진영이 승리하느냐 하는 인류사의 최대 문제가 넘겨준 역사의 엄청난 무게를 북(조선)은 1990년대 10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다.

클린턴 정권은 반제진영의 유일한 영도국으로 남아있는 북(조선)을 없애버리면 반제진영 자체가 지구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으로 타산하였다. 미 군부가 ≪5027 작전계획≫를 가지고 실시한 컴퓨터 모의전쟁실험의 결과는 언제나 미군의 승리로 나왔다. 클린턴은 한(조선)반도의 전쟁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국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호언장담하면서 흥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어리석게도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북(조선)이 미국의 전쟁계획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총포소리 없는 조·미 전쟁≫이 과연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북(조선)은 199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포소리 없는 조·미 전쟁≫에 대비하여 이미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일화는 북(조선)의 준비태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클린턴 정권이 1993년 3월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세계 최대의 전쟁급 실전훈련으로 재개할 준비를 시작하였을 때,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걸프전에서 이긴 미국이 첨단무기를 총동원하여 북(조선)에 쳐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하는 **김일성** 주석의 질문에 대해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은 쉽사리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하고,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하여 강력한 타격수단을 실전에 배치하였음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제전쟁의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클린턴 정권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기 하루 전날인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고 북(조선)은 전시동원태세에 들어갔다.

위의 일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필승의 전쟁시나리오를 수립해놓았다는 사실이다. 북(조선)의 반제전쟁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을 강타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을 실전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강력한 타격수단은 곧 전략미사일을 뜻한다. 전략미사일은 북(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반제전쟁의 수단이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은 군사력이며, 그 군사력의 실체는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이다.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이 없는 미국의 지배력은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은 자기만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을 무한정으로 개발하고 보유하려 하고 있으며, 5대 핵강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이니 미사일기술통제협약이니 하는 국제법을 만들어놓고 모든 나라들이 그 조약과 협약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만일 반제진영의 어떤 나라가 핵무기나 전략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면, 미국은 그 나라를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국가≫로 낙인을 찍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쳐들어가게 된다. 미국은 전략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가 반제진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는 반제진영이 전략미사일로 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말에 한(조선)반도를 무대로 하여 벌어진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치열한 대결은 반제진영이 전략미사일을 보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결이었다.

오늘 반제진영은 반외세 민족주의세력과 반제민족해방세력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였다. 반제진영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반제민족해방세력이다. 반제민족해방세력은 거의 모두 비국가적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20세기말에 반제노선을 수호하는 혁명적 국가는 오직 두 나라, 곧 동반구의 북(조선)과 서반구의 쿠바밖에 없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쿠바의 국가역량은 전략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수준에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므로 북(조선)이 전략미사일을 보유하는 문제는 20세기말에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도전을 받게 된 세계 반제진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대의 문제로 되었던 것이다. 만일 반제진영의 어떤 나라가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구도에는 파열구가 뚫리게 된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최대 약점이었다.

북(조선)은 1993년 5월에 기습적으로 미국의 약점을 찌르는 제1차 공세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93년 5월 당시 미 해군 예비역 장교로 미 국방부 ≪전국군사합동정보센터(NMJIC)≫에 근무했던 마크 커크(현재 미국 연방하원의원)는 얼마 전 ≪미국 연방의회 미사일 방어 문제 회의≫에서 1993년 5월에 북(조선)이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미 국방부가 긴급비상태세에 돌입했다고 회고하면서, 미사일 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사거리를 측정하는 ≪전국군사합동정보센터≫의 컴퓨터는 시험발사 직후 예상되는 최종목표를 미국 본토로 계산하였는데, 그 뒤로 미국 서부 해안일대와 하와이 등으로 목표가 좁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은 북(조선)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999년 12월 30일자 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93년에 끝난 제3차 7개년 계획이 아직 수행되고 있었던 후반부에 북(조선)은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짧은 기간 안에 완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술기재라는 것은 1993년 5월에 시험발사되었던 중거리 미사일을 뜻한다.

지금 미사일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북(조선), 이라크,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인도 등이다. 파키스탄이 자체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사일 ≪가우리≫는 자국산이 아니라 북(조선)에서 수입한 미사일 ≪노동 2호≫로 밝혀졌고,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 ≪샤하브≫도 북(조선)의 미사일 기술을 들여와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파키스탄과 이란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킬로미터를 넘지 못하는 것들이다. 리비아가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스커

드≫ 개량형의 사거리는 288킬로미터이며, 이라크가 혹시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만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사거리는 864킬로미터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인도의 미사일인 ≪프리트비≫는 사거리가 150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으며, 사거리 2,480킬로미터의 미사일인 ≪애그니≫는 3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하던 중 미국의 압력을 받고 개발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제3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미사일 개발능력과 생산능력에서 북(조선)을 따라오지 못한다. 제3세계 나라들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수적인 3단식 발사체를 개발하는 높은 기술수준에 이른 나라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는 나라도 아직 없다. 북(조선)은 제3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사일 선진국이다.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고 위험한 전쟁책동에 매달리고 있던 클린턴 정권이 자신의 전쟁책동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때는 북(조선)으로부터 제2차 기습공세를 받았던 1998년 8월이었다. 그 때 북(조선)은 자국 최초의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와 그 인공위성체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렸다. ≪아사히신붕≫ 2001년 9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이 1998년 8월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하여 발사했던 3단식 우주발사체의 이름은 ≪백두산 1호≫라고 한다. 최근에 평양에서 발행된 ≪조선대백과사전≫에 그 우주발사체의 이름이 나와있다는 것이다. 북(조선)에서 광명성은 백두산 상공의 밤하늘에 떠오르는 커다란 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백두 광명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인공위성체와 3단식 우주발사체의 개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음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북(조선)은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심장부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 북(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 미사일이 미국의 심장부까지 날아가는 가상시간은 28분이다. 미국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북(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관한 정치협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초에 정치협상의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모든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미국이 그 개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북(조선)과 정치협상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분석은 빗나간 것이다.

북(조선)이 20세기말에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체의 기술과 자금으로 만들어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만일 그 20년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북(조선)은 1993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의 침략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왔던 미국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면전 직전의 험악하고 첨예한 지경으로 몰아갔으면서도 북(조선)에게는 차마 덤벼들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북(조선)은 뒷걸음질을 치는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맹공을 퍼부으면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콧대를 꺾어놓았다. 지난 10년 동안 제3세계의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침공을 받고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바로 그 기간에, 전면대결의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연속적으로 강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미국의 콧대를 꺾어놓았던 유일한 나라는 북(조선)이었다. 클린턴 정권 8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전면전 위협 앞에서 북(조선)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나가면서 세계 반제진영을 수호하고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심장부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강타할 수 있는 대량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만 골라서 전쟁을 하는 나라다. ≪백두산 1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 북(조선)이 미국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클린턴 정권에게 깨우쳐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뒤에 견제장치가 없어진 틈을 타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휘젓고 다니던 미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벌어진 ≪총포소리 없는 조・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클린턴 정권은 패배하였다. 클린턴 정권은 뒤로 물러섰고, 자기의 한(조선)반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1998년 말부터 클린턴 정권을 고민에 몰아넣은 물음이었다. 클린턴 정권이 신흥군사강국 북(조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조선)반도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2) 클린턴 정권의 한(조선)반도 정치외교전략 수정과 그 결과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략은 정치외교전략과 군사전략으로 대별될 수 있다. 20세기말의 조・미 대결에서 패한 클린턴 정권의 전략검토는 그 두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정치외교전략의 검토와 수정을 총지휘한 사람은 윌리엄 페리였다. 그는 1999년 9월에, 그러니까 북(조선)이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의 위용을 세계에 과시했던 때로부터 근 한 해 뒤에 한(조선)반도에 대한 정치외교전략 수정판을 완성하였다. 그 수정판을 세간에서는 ≪페리 보고서≫라고 부른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외교전략 수정판인 ≪페리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전쟁을 기피하겠다는 말이고, 조・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말은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다는 말이다.

2000년에 들어서서 클린턴 정권이 자기의 한(조선)반도 정치외교전략을 수정한 뒤에 김대중 정권에게 요구한 것은 대북 정치협상의 추진이었다.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남북 정부당국 사이의 접촉은 마침내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이라는 역사적 대사변을 이루어내었다. 클린턴 정권은 평양회담에서 자기의 수정된 정치외교전략이 채택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 미국의 수정된 정치외교전략을 남북관계의 틀로 변형하면, 그것은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하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두 개의 주권국가로 상호인정한 기초 위에서 국가연합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개된 ≪페리 보고서≫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클린턴 정권은 한(조선)반도의 평화공존전략(국가연합수립전략)을 조・미 관계 정상화에 수반되는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 6월 13일 7천만 민족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던 김대중 대통령의 손에는 클린턴 정권의 수정된 한(조선)반도 전략에 따라 국가연합 수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채택하려고 하였던 남북평화선언문 초안이 들려있었다. ≪요미우리신붕≫ 2001년 6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하여 거절당했다고 한다. 1991년에 나왔던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한(조선)민족의 통일염원에서 한 걸음 비켜나가서 한(조선)반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개의 나라, 다시 말해서 국가연합을 수립하려는 클린턴 정권의 수정된 한(조선)반도 정치외교전략에 근거를 둔 전략구상이다.

클린턴 정권은 크게 오산하였다. 평양회담에서 채택된 것은 국가연합을 수립하기 위한 남북평화선언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었다.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클린턴 정권의 수정된 한(조선)반도 정치외교전략이 미처 착수되기도 전에 파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변이었다. 클린턴 정권이 한(조선)반도에서 추진하려고 고안했던 국가연합수립전략은 6.15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클린턴의 책상서랍 속에서 휴지로 변해 버리는 결정타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클린턴 정권은 자기들이 김대중 정권을 앞세워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연합수립전략이 6.15 공동선언으로 파탄되었음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조・미 정치협상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북(조선)에게 패한 클린턴 정권에게 조・미 정치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클린턴 정권은 자기들의 집권기간 8년 동안 북(조선)을 전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전면전을 도발하려 했던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9년의 페리보고서 작성이 2000년의 조・미 공동성명으로 이어졌고, 다시 조・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으로 진전되었던 것이다.

2000년 10월 2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은 어느 날 갑자기 조명록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서 클린턴과 회담하여 채택된 문서가 아니다. 그 성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북(조선)은 간고하고 험난한 반제투쟁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속하였다. 물론 북(조선)은 1945년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국토가 분할되었을 때부터 반제투쟁을 전개해왔으므로, 북(조선)의 반제투쟁의 기간을 56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북(조선)의 반제투쟁이 1945년 9월 미군의 한(조선)반도 상륙 이후부터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반제투쟁의 30년을 강조하는 까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3년에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에 2000년 10월까지 근 30년 동안의 반제투쟁을 이끌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미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역사적 사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여 왔던 북(조선)의 30년 반제투쟁의 승리였다.

그 30년 투쟁역사의 갈피에는 세상에 밝히지 못하고 묻어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른다. 그 수많은 사연들은 먼 훗날 통일조국의 역사가들에 의하여 한(조선)민족의 위대한 반제투쟁사로 기록되어 20세기의 인류 역사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위하여 북(조선)은 지난 30년 동안 온갖 역경과 난관을 무릅쓰고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세력과 맞서서 대결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였다는 사실, 그 두 가지다.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열 차례도 더 좌절하였을 수 있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폭풍이 몰아쳤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북(조선)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반제투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간고분투하였다.

북(조선)은 경제건설의 전략과 전망이 확고하게 있고, 물질・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적 성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원인은, 자기의 국가적 자원과 능력을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30년 동안의 반제투쟁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는 데 있다. 만일 북(조선)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공세적 반제투쟁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수세적 방어전에 주력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에 자기의 국가적 자원과 능력을 투입하였다면, 북(조선)은 오늘 경제적 난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7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추대되었을 때, 그는 북(조선)의 경제적 풍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조선)민족 전체가 분단으로 인하여 겪는 민족적 재앙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과업이라고 믿었다. 미국에 의하여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라의 반쪽이 미국에게 자주권을 짓밟히는 민족적 재앙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북(조선)의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려는 국가발전의 길을 택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주체사상과 모순되는 것이며 한(조선)민족 전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북(조선)은 자기들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반제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항일투쟁 20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반제투쟁의 길을 가는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북(조선)은 그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간고하고 험난한 30년 반제투쟁을 마침내 조·미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였다.

우리는 조·미 공동성명 채택의 의의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조·미 공동성명은 7천만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미 공동성명에 민족자주의 좌표가 들어있다는 말은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조·미 관계가 마침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북(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2001년 10월 23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일어났던 조·미 관계의 질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담화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조·미 사이에는 대화가 활발해지고 적대관계의 종식을 확약한 공동코뮈니케와 테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는 특사방문과 친서들이 교환되고 최고위급 상봉이 일정에 오르는 정도로 이해와 신뢰가 조성되었었다. 더욱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 일정에는 미국이 위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 문제를 서로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우리의 중대결단에 대한 토의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 12월 30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북(조선)의 ≪중대결단≫이라는 것은 미사일의 실험과 수출만이 아니라 개발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클린턴 정권 시기에 대북정책 조정관이었던 웬디 셔먼은 클린턴 정권 말기에 북(조선)과 미국은 북(조선)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의 개발, 배치,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진지한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클린턴 정권 시기에 국무부 정책기획담당 차관보였던 몰튼 헬퍼린도 클린턴 정권 말기에 북(조선)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선언을 항구적인 협정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조선)이 이처럼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중대결단을 내린 것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대결단을 통해 조·미 관계에서 제기된 초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은 그 방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것이 클린턴 정권 말기에 조·미 관계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클린턴 정권 말기에 북(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당시 내외 언론들은 한결같이 북(조선)이 인공위성 대리 발사,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지원을 요구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이야기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 진행된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북(조선)은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조·러 모스크바 선언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인공위성 대리 발사,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지원 등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것이다. 북(조선)이 2000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조·미 정치협상에서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를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는데, 10개월 뒤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러 정상회담에서 비로소 그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클린턴 정권 시기에 조·미 정치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뻔하였던 핵심내용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확약하는 것과 더불어 북(조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중지를 확약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외 언론들이 떠들었던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앞으로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에 나와서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문을 채택하는 경우, 그 합의문에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반드시 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조·미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조·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에 나와서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는 경우, 그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실시될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조선)반도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남·북·미 3자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까닭에 클린턴 정권 시기에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였던 스탠리 로스 같은 사람조차도 2001년 1월 11일 아시아협회에서 연설하면서, ≪조·미 미사일 협정을 맺게 되면 재래식 군축협상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중지가 상호타결방식으로 확정되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자주통일의 전망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호석 소장
2001/11/24 통일학연구소

# 부시 정권의 6.15 공동선언 방해책동과 한(조선)민족의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

## (5) 약속 파기에는 약속 파기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그렇다면 부시 정권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조·미 공동성명을 무효화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부시 정권은 과연 조·미 공동성명을 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까?**

부시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미 공동성명을 파기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문도 파기하고 싶을 것이며, 친미예속정권에게 6.15 공동선언을 당장 파기해 버리라고 지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파기행동은 제국주의의 파괴적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의 파괴적 속성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힘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조선)에게서 나옵니다. 북(조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 정권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조선)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면 조·미 공동성명, 제네바 기본합의문, 6.15 공동선언은 모조리 파기되어 이미 오래 전에 휴지조각처럼 허공에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문서들은 아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한(조선)민족은 미 공군 전폭기들의 맹폭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처참한 운명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했고, 되레 북(조선)과의 대결에서 정치적으로 패하여 콧대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시 정권이 조·미 공동성명을 파기하는 파국적 사태가 발생하면,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철회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발사준비를 명령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북(조선)의 우주개발기술자들은 무수단리 우주발사장으로 ≪백두산 2호≫ 운반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 공동성명을 파기한 대가로 부시 정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이 2호, 3호 연속해서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시 정권에게 흥미 있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부시 정권의 난폭한 손에 의하여 조·미 공동성명이 파기되면 제네바 기본합의문도 자동적으로 파기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시동원령을 선포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 가동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북(조선)의 핵기술자들은 핵동결조치에 들





어간 흑연감속로를 즉각 다시 가동시킬 것이며 1994년까지 건설하고 있었던 20만 킬로와트급 흑연감속로를 곧 완공할 것입니다.

약속 파기에는 약속 파기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조선)의 자주외교정책이 견지하고 있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북(조선)이 클린턴 정권을 정치적으로 제압하였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다시 동원하여 부시 정권에게 최후의 치명타를 날리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한 정치적 타격은 다연장 로켓포의 일제사격을 연상케 합니다.

부시 정권이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로 한꺼번에 타격을 맞게 되면 정권으로서 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부시 정권은 그러한 파국과 재앙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 공동성명을 파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부시 정권은 차마 조・미 공동성명을 파기하지는 못하겠으므로 그 성명을 이행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로 시간만 질질 끌면서 조・미 정치협상에 나서지 않고 그 성명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교활한 책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동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끌어보면서 사문화하려는 부시 정권의 책동이 오래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시에게 2003년까지의 시한부 통첩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은 신포 경수로를 미국이 책임적으로 완공하겠다고 클린턴 정권이 약속한 시한이며 동시에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연속발사에 대한 유예조치가 끝나는 시한이기도 합니다. 부시 정권이 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적어도 2년 안에는 조・미 정치협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통일정세가 부시 정권의 방해책동에 가로막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낙담하거나 비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시 정권의 방해책동은 일시적인 반동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시 정권은 초강대국의 권력기구로서 전 세계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저들의 방해책동은 역사발전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요구와 노력은 역사발전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요구이며, 역사발전의 축을 강하게 떠밀고 나가는 노력이므로 그 자체가 위대한 창조력으로 됩니다.

오늘 자기의 자주성을 자각한 한(조선)민족은 그 어떤 난관과 역경도 뚫고 전진할 것이며, 그 누구의 방해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정세의 냉각국면을 녹여버릴 뜨거운 통일열기가 있으며, 부시 정권의 방해책동을 능히 깨뜨릴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단결・단합하기만 하면, 부시 정권의 방해책동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며 냉각국면은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호석 소장
2001/11/15 통일학연구소

#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 통일연대 통일강좌 세 번째 강좌 개최

4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종로성당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족21이 함께하는 통일강좌 3강≫이 개최되었다.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강은 민족통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자, 서울대 사회학 박사인 정영철씨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3강은 북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인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북에서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고, 1998년부터 북에서 주창하는 ≪선군 정치≫에 대한 해설과 북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진지한 분위기와 열띤 탐구로 일관했고, 강연이 끝나고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선군 정치에서의 당 강화의 의미≫와 ≪국방위원회 조직 체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좌가 끝나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남북 특사회담과 남북 단체 실무접촉으로 다시 6·15공동선언 실현의 본궤도에 오른 한반도의 정국에서 통일일꾼들의 목마른 정세인식과 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며 다음 4강을 기약하였다.

※ 통일강좌는 5월 15일까지 총 6강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1강 ≪북의 대외정책 변화와 동북아정세≫, 2강 ≪북의 정치체제와 정책 결정 구조≫, 3강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가 진행되었고, 5월 1일에는 4강 ≪북의 사회와 주민생활≫이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 교수이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인 김귀옥님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2/04/25 통일연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로운 건군절에 즈음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군은 수천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영장, 위대한 사상에 의해 향도되는 진정한 혁명군, 민족군의 탄생이였으며 주체적 혁명무력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조선인민군은 백두의 위대한 전설적 위인들의 탁월한 영도아래 자주적인 군건설의 세기적 모범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장구한 노정위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위훈을 찬란히 아로새겨왔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지략, 주체의 전법과 걸출한 영군술로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격멸하시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인 자위의 군사노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억세게 키우시고 전국가적 전민중적 방위체계를 철옹성같이 세워 강력한 자주적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십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중시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민중에게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군대로 자라났으며 혁명의 준엄한 연대들마다에서 온갖 원수들의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선군사상과 군건설위업은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준엄한 포화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장군들의 총대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사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고 전군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조국청사에 기리 빛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영도로 군안에 혁명적인 영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시고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시며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혁명적 총대철학을 내놓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에로 영도하시어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찬연히 빛내이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것은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업적중에 대업적입니다.

오늘 조선인민군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로,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이룬 사상의 강군, 동지애의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어 세계를 경탄시키고 원수들을 전율케 하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군은 **김정일**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수호자, 주체조국의 보위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담당자로써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인민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사회의 본보기로, 이북 민중의 사상정신적 풍모로 되어 군민일치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과 특유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에 의해 오늘 주체조선은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는 사회주의보루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성새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인류자주위업은 주체의 궤도따라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 주체의 전법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인민군대를 천하제일강군으로 키우시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상에 떨치시고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신 천출명장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영수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한없는 자긍심에 넘쳐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백배천배로 크게 다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독특한 선군정치는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와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남녘 민중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시며 조국통일이시라는 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충신의 대오, 결사관철자의 대오로 더욱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은 미제와 주구배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거족적인 반미반전항쟁으로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6.15공동선언실현의 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켜 올해를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남녘 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4월 25일
서울

# 통일연대 통일일꾼 수련회 열려

2002 통일연대 통일일꾼 수련회가 전국 지역 통일연대 일꾼들과, 통일연대 소속 부문 단체 회원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20-21일 양일간 화양청소년 수련원에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수련회는 예정시간보다 약간 늦은 8시 30분부터 ≪6월의 약속 8월의 만남≫ 영상을 보는 앞풀이로 시작되었다.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본사회로 개막된 수련회는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간단한 개회사가 있은 후, 민경우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의 2002년 정세전망, 정대연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권한대행의 2002년 통일연대 사업계획 발제가 있었다.

민경우 자주교류위원장은 북 · 중 · 러의 정치, 군사적 밀접성에 대한 해설과 4.5 남북공동합의, 4.12 남북단체 공동성명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2002년 통일운동은 통일인사들의 몇 만이 결집보다는 전체 100만, 1000만을 움직이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발제하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급 전민족 대단결을 광폭적으로 실현하고, 남북간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한반도에 먹혀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측면에서 아리랑 축전 관람이 보류된 것에 대해 더 큰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국통일 관점에서 100만이 1000만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느끼게 하여야 하며, 현재 4.5 남북당국자간 합의가 지켜지도록 민간급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객체로서의 입장이 아닌 주체로서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더 큰 통일운동의 폭을 뚫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정대연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발제를 진행하였다.

2002년에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봉쇄와 분열정책에 파열구를 내는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는 대선에서 100만 1000만을 움직이는 향방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러기 위해 우선적인 중심목표로 6 · 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 내외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파탄내고, 6 · 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미일 외세의 대북강경정책, 전쟁책동 파탄을 올해 중심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을 중심으로 한 민족대단결운동을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는 미국의 남측당국의 대화를 통제하고 있으나, 당국자간의 대화를 공고화시키고, 이를 민간급이 적극적으로 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민족적 단합의 기치를 6 · 15남북공동선언으로, 어떤 정세가 도래하더라도 6 · 15남북공동선언이 민족적인 것으로 될 수 있도록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의의를 살리는 것과 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제 반전반미역량을 통일운동에로 인입해야 하며, 추진본부와의 연대 연합, 자주통일진영의 일치된 모습을 강조하였다.

이후 큰 줄기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정대연 정책위장권한대행은 발제를 통해 북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기간≫의 제안에 호응하여 통일연대는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을 5-8월에 진행자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6 · 15공동선언 기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제정할 것에 대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2002년 대선은 미국에 대한 입장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반기 통일운동의 지형을 형성하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통일정책 검증사업에 대한 제안, 반전평화 자주통일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 반전평화 범국민선언운동≫을 진행 할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대략의 사업계획 발제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분임토의를 진행하였다.

조별 분임토론의 주제로는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의 상, 반전평화운동, 지방선거와 대중적 통일운동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약 2시간여 동안 진행하였다.

이후 1시20분 경 분임 토론 보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김대원 대표 석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최철원 집행위원장이 전국각지에서 모인 통일일꾼들에게 김대원동지의 신념과 그러나 당국의 탄압으로 정신질환이라는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김대원 동지의 석방을 위해 모두가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다.

이후 손미희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님의 ≪F-15K선정 철회투쟁을 총력을 다해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자≫라는 제하의 특별결의문 낭독, 이영기 대구경북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의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 · 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의≫ 제하의 수련회 참가자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 낭독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가 있었으며, 21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모두 각각의 현장인 지역과 부문으로 돌아갔다.

2002/04/22 통일연대



# 미국전투기도입결정 당장 철회되여야

###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 4월 24일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국방부》가 19일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미국 보잉회사의 《F－15K》기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지난 4월 5일 공동보도문에 따라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긍정적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남조선에 필요되는것은 민족적 화해분위기이지 동족을 해치라고 외세가 팔아 넘기는 살인무기때문에 빚어지는 대결과 전쟁분위기가 아니다.

문제는 남조선의 군사당국이 미군수독점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평화에 대한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를 묵살하였다는데 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국방부》가 미국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것은 그들의 대미굴종행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5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판매를 남조선에 강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빨아 미군수독점체의 배를 불려 주려 하고 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실을수 있는 수십대의 전투기를 남조선에 들이밀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통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을 핵공격대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번에 전투기를 강제로 판매하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핵전쟁을 유발시키려는 범죄적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인것으로 된다.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략,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작전적거점으로 삼고 이 전략실현에 사용할 최신예전투기들을 사전에 현지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을 다시금 격화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지연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긴장시키는 강압적인 전투기판매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국방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 국방부 ≪F-15K≫ 최종 선정 결정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1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국방부는 19일 ****을 열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군당국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의 선정과 구입책동은 반제평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보나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요구로 볼 때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차세대전투기구입에 5조내지 6조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혈세가 탕진되는 것으로하여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 구입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F-15K≫기를 선정해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매국배족적인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제 ≪F-15K≫기를 선정하게 된데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호전집단으로 하여금 전력을 증강케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 구입하도록 부단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 토마스 슈워츠는 국방부가 미국제 ≪F-15K≫기를 선정하도록 부단히 압력을 가했고 미국 보잉사 부회장은 ≪한국≫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잇따라 만나 ≪F-15K≫기를 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F-15K≫기 생산공장이 있는 미주리주출신의 미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본드는 ≪한국≫이 문제의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전미국의 요구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사대매국적인 식민지 ≪한국≫ 호전집단이 이같은 상전의 거센 압력까지 받았으니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F-15K≫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데는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한국≫전력을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의 돌격대로 써먹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대통령 부시가 ≪악의 축≫망언을 하면서 이북을 반테러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북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문제의 ≪F-15K≫기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고 그 작전반경이 한반도 경내를 훨씬 벗어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식민지≪한국≫에 ≪F-15K≫기를 팔아먹게 됨으로써 ****으로 기업폐쇄위기에 직면해 있는 ≪F-15K≫생산업체를 살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이 ≪F-15K≫기 강매책동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호전집단으로 하여금 전력을 증강케 해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실현을 위한 준비를 더욱 완성하면서도 근 6조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까지 벌어 저들의 배까지 불리는 미국이야말로 희세의 호전집단, 강도의 나라이고 그 행태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식민지≪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정세를 더 격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보다 큰 난관을 조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애국민중들이 문제의 ≪F-15K≫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전력증강책동을 중지하고 ≪F-15K≫기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연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난관을 조성하는 철전지원수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




≪오늘 F-15K가 결국 선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방부의 결정이 한국민을 얼마나 배신하는 행위였는지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는 국방부가 19일 차세대전투기로 F-15K를 선정하자 격앙된 목소리로 국방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가 오후 2시 F-X 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F-15K를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오후 2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F-15K 확정발표 국방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취지설명을 통해 이김현숙 대표는 ≪F-15K 선정 소식에 너무 놀랐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방부가 한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이제 무감각한 침묵의 상황을 깨고 온 국민이 F-X 사업반대의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방부의 이번 F-15K 선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가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F-15K 선정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배반, 우롱한 것이자 국가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F-15K선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은 ≪국민을 속이고, F-X 사업에 대한 온갖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국방부의 F-15K 선정은 원천무효≫라며 ▲대통령의 F-15K 재가 거부 ▲김홍걸, 최규선씨 구속수사와 국방장관 파면 ▲F-X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F-X사업의 연기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F-X공동행동은 F-15K선정 대통령 재가 거부를 촉구하며 범국민서명운동, 신문광고, 사회원로선언, 사이버시위 등의 향후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F-15K 선정철회와 F-X사업에 대한 연기를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국방부가 F-15K를 예상대로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하자 집회 참가자들의 규탄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를 취재하는 보도경쟁도 뜨거웠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에는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요청했던 사회단체대표단이 전날에 이어 청와대로 찾아갔지만 경찰의 저지에 막혀 3시간 동안 의도치 않은 차량시위를 벌였다.

전날 ≪찾아오면 막지 않겠다≫는 종로경찰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차량 2대를 타고 경복궁 동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은 순찰차와 버스 2대로 대표단의 차량을 막아 나섰다.

대표단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대표단은 차량에 ≪Fresident Kim say No F-15K≫, ≪Withdraw the selection of F-15K Jet Fighter≫등의 문구를 써붙이고 차량시위를 벌였다.

청와대의 면담거부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규현 신부는 ≪착찹하다.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듣지 않으니 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할지......≫라며 말문을 흐렸다.

이날 대표단의 청와대 차량시위 도중에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대표가 경찰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해 경찰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생겨 대표단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사과와 함께 119 구급차량으로 명동 백병원으로 박순희 대표를 급하게 옮기기도 했다.

오늘 국방부의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로 차세대전투기는 F-15K로 공식 결정됐지만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예정이어서 F-X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4/19 통일뉴스





# 네티즌들 울분, 국방부 홈페이지 마비

국방부가 논란끝에 차기전투기(F-X)를 미국 보잉사의 F-15K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8일 오후부터 일부 언론매체에서 차기전투기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날 오후2시 발표시점이 다가오면서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다운되는 사태를 빚었다.

특히 최근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 보잉사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점과 이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대부분 1970년대 개발된 ≪고물 전투기≫를 국민의 혈세로 사들여 21세기 영공을 지킨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한 시민은 ≪노태우 대통령시절 시행된 율곡사업에서 F-18을 선정했다 국방부와 고위층의 압력으로 인해 나중에 F-16로 변경됐다≫며≫현재 F-16은 엔진결함으로 100여대가 발이 묶인 상태≫라며 포문을 열었다.

≪애국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고물 비행기를 사겠다는데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오노≫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밥이자 봉≫이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은 ≪국방부는 미국방성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며 선택배경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유행중인 조지 W.부시 미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 대화를 묘사한 대사의 일부를 인용해 미국측이 ≪F-15 자전거(전투기를 지칭)≫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구체적으로 기술 결함까지 거론하면서 F-15K 전투기 선정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부는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국방부를 맹폭했다.

문관현 기자
2002/04/19 연합뉴스

# F-15K 선정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관광버스들은 쉴새없이 드나드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온 대표는 중상을 입혀 내모는 게 말이 됩니까?≫

23일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진입로에서 F-X공동행동, 천주교 F-X대책위 주최로 열린 ≪F-15K 내정철회와 박순희 대표 중상 경위 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천주교 여성공동체 김선식 회장은 ≪청와대가 일개 관광지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선식 회장은 ≪박순희 대표가 현재 식사도 전혀 못하고 있고, 하루 3-4시간씩 링겔을 꼽고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사고를 일으킨 경찰 당사자만 병원에서 사과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고 밝히고 ≪사고의 진짜 책임자인 청와대 경비대장과 종로경찰서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요구 과정에서 청와대 2002경비대에 의해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천주교평화지기 박순희 대표 교통상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F-15K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활동계획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F-15K 확정발표로 한국이 과연 주권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6조원대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F-X사업을 일부 정책결정자의 독단과 미국의 압력에 쫓겨 결정한다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F-15K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성명서는 ≪전날의 면담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가로막고 박순희 대표에게 중상을 입힌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F-15K 선정철회를 위한 F-X공동행동의 향후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4월 27일, 5월 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4월 24일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김종일 사무처장은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중지 가처분 신청등의 법률적 대응과 함께, 4월 25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를 조직화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청와대로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1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경찰현장책임자는 ≪청와대는 민원실이 없으니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며 참가자들을 막아나섰고, 대표단은 ≪청와대로 가는 길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어서 길을 비켜서라≫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경찰이 길을 비켜섰고 문규현 신부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청와대 면회실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2002/04/23 통일뉴스

# 네티즌들, 反美축제 ≪오! 노 USA≫ 열기로

## 5월 3-4일 경희대 · 명동서, 1만명 이상 참가 예정




연초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발언과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강탈에 이어 지난 19일 공군의 차기 전투기선정에서도 노후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자 이에 반발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함께 나누다가 오프라인에서 힘을 합쳐 축제형식을 빌린 반미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미국의 F-15K 선정압력과 관련해서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정부당국은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우리 젊은이들의 분노를 순간의 혈기로 오인한다면 그것은 F-15 선정보다 더 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민족축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4일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종목에서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오노 선수의 이름을 패러디한 ≪오! 노~ U.S.A 페스티벌≫(Oh! No~U.S.A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청년민족축전≫을 5월3일부터 이틀간 경희대와 명동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 행사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축제의 총연출을 맡은 지정환씨(노래패 ≪우리나라≫ 기획담당)는 이번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네티즌들임을 강조하고 ≪기본회원수 2천명이상의 사이트 20여개가 모여 스스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으며 그 중에는 8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5월3일 공연행사에는 1만명에서 1만5천명 참가를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씨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미국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가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한 자리에 모여 힘을 합하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어떤 한 사람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가입하고 있는 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경회씨(홍익대학교 학생회장)는 ≪이전의 반미운동이 감정적으로 미국을 부정하는 단발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그동안 혈맹, 우방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서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찾을 때까지 꾸준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공연형식으로 열리는 첫날 행사는 ≪자전거 탄 풍경≫같은 대중가요 가수부터 ≪레이지본≫등 인디밴드, ≪종이비행기≫, ≪기특한 과자≫등의 풍자성 강한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 히트시키고 있는 민중가요패 ≪우리나라≫까지 어우러져 한바탕 공연을 펼치고 4일 명동 한빛은행 지점 앞에서 열리는 둘째 날 행사는 ≪미국의 美자를 米자로 바꾸기 캠페인≫, ≪F-15기 선정반대 서명≫등 캠페인과 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단체 중 하나인 인터넷 카페모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관리자 최향림씨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동계올림픽에 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었으나 쇼트트랙 경기의 편파 판정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접하면서 미국제품 불매사이트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소개하고 이날 발표된 축제와는 별도로 오는 28일을 ≪온 국민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축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혈세로 미국을 살찌우는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현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성명에서 준비위는 ≪미국과 정부당국은 우리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분노를 순간의 혈기로 오인한다면 그것은 F-15K 선정보다 더 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의 의의에 대해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 토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고 연대하여 자생적으로 기획한 사회적인 의식이 깔린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이태호실장은 ≪아직 구체적 성격은 알 수 없지만 온라인 모임이 오프라인에서도 자생적 힘으로 성공을 한다면 사회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비위는 이번 공연과 축제로 생기는 수익금은 F-15기 도입을 반대하는 신문광고와 미군에 의한 피해자 후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여나 관람에 대한 정보는 행사의 홈페이지인 http://www.ohnousa.com에서 얻을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02/04/25 프레시안

# ≪5.18시민법정에 미국을 세운다≫

## 광주학살 책임규명 ≪5.18시민법정 추진위≫ 발족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22년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5.18시민법정≫이 오는 5월 18일 광주 도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는 5.18시민법정 추진위 발족과 관련, ≪시민의 힘을 모아 광주학살의 공범인 미국정부와 군 고위 관료들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광주학살을 일으키고도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재발방지조치도 하지 않은 미국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추진위는 이날 15조로 구성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 헌장≫을 채택했다.

5.18시민법정에는 오늘 채택된 ≪5.18시민법정 헌장≫을 근거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비롯해 내정간섭행위,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 및 피고인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 왜곡하며 배상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카터 미 대통령을 비롯한 5.18 당시 미국 정부와 미군 고위관료 5명을 피고로 세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광주지역단체들의 제안으로 오늘 발족을 하게 된 추진위는 현재 민변에 법정준비팀을 구성해 법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5월 7일경 정식 공소장과 출두요구서를 전달, ▲5월 11일 민중연대 주최의 광주학살공모규탄 대중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5.18시민법정의 재판 이후에는 광주학살진실조사위원회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학살 책임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는 ≪광주학살에서의 미국책임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고 또 그 근거도 그간 많이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법정은 ≪근거를 가진 법정형태로 미국을 단죄하고 책임을 묻는 걸 모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또 이는 ≪한미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자주평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한 5.18시민법정 추진위에는 광주지역의 5.18관련단체와 전민특위, 민변, 전국연합 등 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4/25 통일뉴스

# ≪4월 28일은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

8만 6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동호회 사이트에서 오는 28일(일)을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로 선정해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cafe.daum.net/2002olympics)은 지난 3월 25일 회원들을 상대로 한 공지사항 게시판에 ≪단 하루뿐인 4월≫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단 하루라도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을 선정하자≫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포스터, 전단지 등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했다.

4.28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을 지정한 사이트 운영진은 홍보광고를 통해 ≪김동성 선수가 태극기를 바라보며 고개숙여 가슴으로 눈물을 흘린지 한달여가 지났다≫며 ≪불매운동은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저 오만한 미국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며 또 그림자처럼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냄비근성이라는 꼬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층도 정치인도 지식인들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국민들이 지켜줍시다≫라고 호소했다.

4.28 맥도날드 출입금지의 날에 대해 네티즌들은 ≪왜 하필 맥도날드인가?≫, ≪왜 꼭 4월 28일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운영진은 ≪불매운동이 한창일때도 맥도날드 관계자라는 간부는 이를 비웃고 평가절하 했으며 미국 자본주의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상징이 맥도날드≫라고 밝혔다.

또 날짜가 4월 28일로 결정된 것은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 시점과 연계시켜 효과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4월19일 전후로 날짜를 선정하면 4.19행사에 묻혀버릴 우려가 있었고, 홍보기간을 두기위해 28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cafe.daum.net/2002olympics) 운영진은 여타 미국제품 불매운동 단체와 연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반미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전, 네티즌들의 반미운동으로 미국계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이 급격히 저하됐던 점을 돌이켜볼때 이들의 미제품불매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종태 기자
2002/04/24 유뉴스

#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21일



지금 온 민중이 남과 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중과 겨레의 이같은 강렬한 소망에 재를 뿌리면서 훼방을 하는 반통일역적들이 있어서 민중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협력사업을 북퍼주기라면서 악을 쓰며 시비질하는 이회창과 그 일당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이 시간 청순서로 통일운동가 김정수씨의 글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를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조국통일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족사적인 흐름을 달가와하지 않고 시샘하는 세력이 있어 온 겨레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회창과 한나라당집단이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남북관계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일방적인 퍼주기니 뭐니 하며 그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얼마전에도 이회창패거리들은 덮어놓고 무턱대고 북한에 퍼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받지 못해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남북협력사업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 각계의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데 도전해 계속되고 있는 이회창패거리들의 이같은 행태는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는 고약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혈육지간에 무엇을 얼마주고 받았다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족사이에는 퍼주기니 뭐니하는 것과 같은 장사치들의 시장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조상대대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왔으며 이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미덕으로 자부해 오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이 조상전래의 이 미풍양속에 칼질하다 못해 민족통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인 남북협력사업까지 퍼주기로 매도하고 있으니 세상에 악한 짓이면 이보다 더한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회창패거리들은 애당초 민족의 넋이라고는 참새눈물만큼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것들이 퍼주기 퍼주기하는데 도대체 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지껄이는가. 사실 우리가 북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이 넘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이산

가족교환방문과 각종 분야에서 북과의 교역과 교류, 합작 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서 이남이 입는 덕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북이 남에 금강산관광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만 봐도 그렇다. 민족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수천억달러로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북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앞서 금강산을 지척에 두고도 밟아볼 수 없는 이 땅 우리 민중의 아픈 마음을 가셔주기 위해 이같은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더구나 이남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돈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북으로부터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이 지켜든 선군정치의 덕택이다. 어느 한 문필가가 북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이 땅은 아프간보다 더 참혹한 전란에 휩싸여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인도 없고 국회의사당도, 공단도, 언론사도 잿더미 속에 묻힌 황량한 폐허로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천만번 지당한 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이회창같은 것들이 지금 정치인이랍시고 활개칠 수 있는 것도 북이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같은 혜택을 그래 이회창이 북에 퍼준다고 하는 것과 비길 수 있겠는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했다. 퍼주기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퍼주기를 부르짖는 이회창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패거리들이 퍼주기 퍼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북에 퍼주었다고 할만한 명분도, 체면도 없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북이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광복후 새조국건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 쪼개 써야 했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북은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남 연백골 농민들에게 후암저수지와 우의저수지의 물을 보내주고 전기가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기를 보내주는 등 이 땅의 우리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했었다. 엄청난 폭우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84년 수재때 이 북이 취한 구호조치는 북의 동포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솔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숭고한 화폭이었다.

막대한 양의 쌀과 시멘트, 의약품을 비롯해 북의 지성이 깃든 사심없는 구호품들은 혹심한 재난을 입고 절망에 빠졌던 수재민들을 다시 소생시켜준 생명수였다. 정녕 이북이 취한 구호조치는 그 양에 있어서나 성의에 있어서 구호역사가 생겨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최상 최대의 것이었다.

북은 이처럼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이 땅의 우리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것들이 이에 감사하고 보답할 대신 오히려 북의 진정에 마구 칼질을 해대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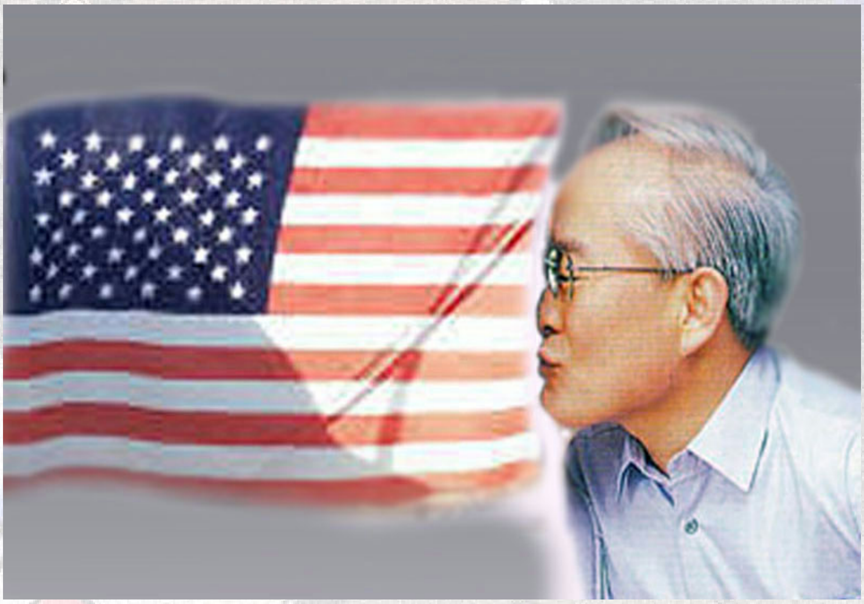
이회창패거리들이 북에 퍼주기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진짜로 퍼주고 가져다 바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야말로 미국에 무턱대고 미친듯이 퍼주고 있다. 역대 위정자들은 반세기이상 이 땅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미국 침략자들에게 8000여만평에 달하는 우리의 귀중한 옥토를 섬겨바친 것도 부족해 해마다 그들에게 3억달러이상의 유지비까지 퍼주고 있다. 침략자 미군이 50여년간 차지하고 있는 군사기지사용료와 그들에게 해마다 퍼주고 있는 유지비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당국자들은 또한 해마다 군비를 증강해 그의 대부분을 퇴화된 미국제 무기들을 사오는 방법으로 미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불궈주고 있다. 그들이 지난 수년간 미군수독점체들의 퇴화된 무기구입에 소모한 자금이 모두 85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미국에 퍼주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퍼주기는 갈수록 그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군호전집단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 무기체계사업, 다시 말해 차세대전투기(FX), 차세대유도무기(SAM-X), 차세대공격헬기(AH-X), 차세대구축함(KDX-3) 등의 도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무려 13조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강매압력과 그에 추종한 이회창과 같은 친미분자들의 책동으로 차세대전투기기종으로써의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F-15K≫기종이 5년후에는 폐기처분돼 박물관으로 들어갈 기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군호전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무기체계사업이라는 것이 순수 미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고금이 미국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민중생활의 안정향상에 지출돼야 할 막대한 국고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민생은 갈수록 영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패거리들이 이같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에 대한 퍼주기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사실들은 이회창패거리들이야말로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 있다. 외세의 충견이 되어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안달인 이회창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염원을 실현할 수 없다. 어느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긴요하고 민족대단결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민족반역의 무리이며반통일집단인 이회창패거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인줄 안다.

퍼주기로 말하면 몇년 뒤에는 폐철에 불과할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대량 들여와서 미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안달이 나 하는 이회창과 그 패당들, 호전분자들이라고 하겠죠.



#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3일

바닷물이 짠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양 전체를 맛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발표된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통해서도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당의 대북기본노선이 밝혀진후 지금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들은 물론 정치권일각에서까지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기본노선이라는 것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노선≫에는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간의 관계인 남북관계는 곧 민족문제, 통일문제죠.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더욱이 민족공동의 가치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북과 대결하려는 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본노선≫에는 또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남과 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반대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나라당과 같은 호전광들때문이죠. 최근에도 이 땅에서는 북침을 노린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고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주한미군유지를 애걸하고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집행에 돌격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앞장서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면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건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공동선언을 뒤집는 행동이고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인거죠.

제반 사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정당이며 부시의 졸개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건 이 문서가 대선을 앞두고 꾸며졌다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같은 반역정당이 집권하면 이 땅에서는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가 다 날아가버리고 이 땅에서는 친미사대매국행위가 더욱 우심해지게 되며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세력은 더욱더 가혹하게 탄압당하게 될겁니다.

현실은 우리 노동대중으로 하여금 호전광의 무리, 민족반역자들의 무리인 한나라당을 단호히 깨어버릴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한사람같이 분기해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족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려야 할겁니다.

우선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이른바 ≪상호주의≫의 주창자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 수구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를 정계에서 드러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애비때부터 역적질을 해온 그의 가문이 오늘날에 와서는 역적질도 모자라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썩어빠진 가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이번 대선에 노동대중,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참여해 그를 정치적으로 영원히 매장시켜 버려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이회창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을 깨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며 호전광인 부시의 주구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같은 부시의 졸개정당이 집권하면 우리 노동대중은 미국의 경제침탈강화로 더욱더 큰 고통과 불행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런 반민족적이며 반역정당을 깨버리는 투쟁에 노동대중이 앞장서야 할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투쟁을 벌여나감에 있어서 노농운동단체들이 각계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많은 대중운동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회창과 한나라당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쓸개빠진 자들의 무리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영원히 매장해버려야 할겁니다.

까마귀들이 모인 곳에서 까욱소리밖에 나올게 없는 법이거든요. 이회창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천하에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고 이런 쓸개빠진 자들의 무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해체해 버려야 하겠죠.



# 구시대인물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축출하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

지금 극우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민중들 속에서는 땅도 갈고 정치판도 갈아서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하자는 움직임이 날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재야정치인 이명철씨의 글 ≪구시대인물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축출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통령권좌를 노린 정치권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구시대적 대결정치만을 일삼아온 극우보수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환멸로부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극우보수부패정치인들은 사대매국과 반공, 반통일, 독재정치와 부정비리만을 일삼아온 민족반역자, 반통일역적, 독재광들이며 추악한 도둑왕초들이다.

우리 국민은 역대 식민지독재정권의 더러운 사생아들이고 추악한 정치매춘부들인 우익보수부패정치인들의 희생물로 될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더이상 되풀이할 수 없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친미친일, 반공과 반통일만을 일삼으며 민주와 언론탄압에 광분해온 극악한 반공, 반통일역적, 민주의 원수이며 우익보수부패정치의 우두머리이다. 민주화와 인연이 없고 민족민중과 등을 돌려대고 기득권유지와 부정축재에 환장이 된 이회창역도가 대통령권좌에 올라앉으면 망국에 망국이 덧쌓여지고 6.15공동선언은 날아나게 되며 우리 국민은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정치권에서 축출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 민중에게는 2년전 거족적인 낙천낙선운동으로 우익보수부패정치인들에게 된타격을 안긴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있다. 각계 민중은 2년전 4.13총선의 경험을 살려 반이회창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전국민이 원한과 분노를 담아 대권에 미쳐 날뛰는 이회창, 외세에 빌붙어 이 땅의 민주발전을 차단하며 반공대결과 분열책동을 일삼아온 한나라당을 엄정히 심판하여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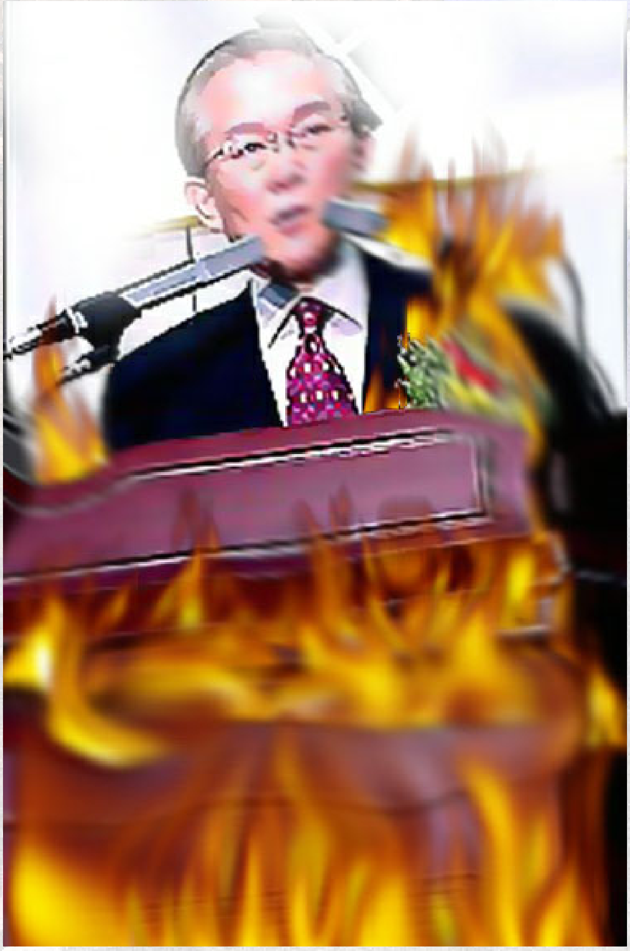
운동지도핵심들은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후보자바로알기운동을 널리 벌여 이회창이 저지른 사대매국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위와 부정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고 폭로단죄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공단가와 농어촌, 대학가와 성당 등 경향 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회창정치활동감시단활동을 적극 벌여 역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수족을 단단히 얽어매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이 투쟁을 봄철 계층별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봄철을 맞아 계층별투쟁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발전노조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대중의 투쟁의 포문이 열리고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와 교육시장화반대투쟁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쟁취투쟁도 적극화되고 있다.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도 청년학생들의 등록금투쟁 등 반이회창투쟁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300만 노동대중은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충실한 졸개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반이회창투쟁의 수위를 더한층 고조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에 적극 참가해서 대선을 이회창을 매장하는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젊은 유권자들이 대선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이회창과 같은 극우보수부패정치인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사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역대 선거과정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청년학생들은 보다 많은 젊은층들이 선거에 대거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이회창역도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일치단결과 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결은 승리의 보검이다. 분산적이고 산발적인 행동으로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애국에 불타고 참신한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투쟁으로 민족반역자 통일의 원수인 이회창을 결정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것이다.



#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말아야한다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24일

**임현아** : 안녕하십니까.

**이 철** : 안녕하세요.

**임현아** : 요즘 항간에서는 이회창을 가리켜 산초판사 이회창이라고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산초판사 ≪한국≫이 된다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철** :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산초판사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미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돈키호테에게 미련할 정도로 아주 충실한 자거든요. 평화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전쟁바람을 일으키며 다니는 현대판 돈키호테 부시를 할애비처럼 모시는 이회창을 가리켜 현대판 산초판사 이회창이라고 하는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임현아** : 주지하다시피 현시대는 반미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철** : 그렇죠. 냉전이 종식된이후 미국의 일극화책동이 부시정권에 들어와서 더욱더 노골화되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과 행동을 일치하던 유럽연합을 비롯한 나라들과 지역들에서도 반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80년대초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이 오늘은 막을 수 없는 열풍으로 거세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노근리에서 감행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이 파헤쳐진 것을 기화로 경향 도처에서 묻혀졌던 미군만행자료들이 생동한 현장사실들로 확인됐었고 특히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이 땅의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이 비상히 고양되면서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이 땅에 대한 행각을 계기로 폭발한 반미열풍은 ≪한국민≫들이 이젠 미국의 진면모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예속민의 비애를 더이상 묵묵히 감수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주의지의 분출이라고 봅니다.

**임현아** : 그런데 산초판사 이회창이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돈키호테부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의별 미친 짓을 다하고 다닌걸 보면 확실히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벗지 못한 것이 알립니다.

**이 철** :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거든요. 오늘날의 ≪한국민≫은 한갖 미국의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민≫은 미국이 내세우는 매국세력이 집권해서 반민족적인 정치를 하고 미국이 이 땅을 군사기지화하고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몰아붙여도 그리고 수천수만의 양민이 미군에 의해 살육당해도 말한마디 못하고 눈물을 삼켜야했던 존재가 아니죠. 지난날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의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빌붙어 생명을 유지해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이 우리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임현아**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 꽉 들어찬 이회창과 같은 자가 권력의 감투를 쓰게 되면 남북관계개선도 6.15공동선언이행도 바랄 수 없게 되고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철** :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반이회창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서 힘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 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회창을 한나라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시켜버려야 할겁니다.

**임현아** : 그렇습니다. 이회창의 말로를 통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친미사대의 길은 곧 구렁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철** : 전국민적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정치인들부터가 이회창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미구호를 높이 드는 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아** : 정치권의 세대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철** : 그렇죠. 반미구호를 들고 미국에 대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정치인이라야 새 세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온 국민이 반미를 외치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정치는 고사하고 보따리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기댈데가 있는데야 뭐 무서울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미국을 거인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뭘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임현아** : 그런 구시대적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얼마전 미국무부의 고위관리까지도 ≪한국≫에 새 세대의 정치지도자가 나와서 한미관계를 새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철** : 그는 ≪한국≫의 선거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 세대 정치지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새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젠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거죠. 이제 다시 미국에 빌붙어 뭘좀 얻어보겠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회창역도가 권좌에 올라앉으면 미국은 그 전날처럼 우리 국민을 가리켜서 또다시 ≪들쥐≫라고 모독할게 뻔합니다.

**임현아** : 그러자면 운동권안의 유권자들을 비롯해서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 반미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불러일으키며 이회창에게 표안주기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철** :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 나서서 우선 한나라당경선에서부터 이회창이 대선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곧 미국의 종노릇을 한 ≪한국≫의 과거사를 결산 짓는 중요한 고리이고 반세기이상이나 미국에 억눌려 살아온 우리 부모들의 원한을 갚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에 아부아첨하는 이회창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가 권좌에 들어앉는다면 세상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똑똑치 못한 돈키호테 부시의 미국을 따라다니는 산초판사 ≪한국≫이라고 말이죠.

**임현아** : 산초판사 ≪한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새 세대 정치인을 자기 손으로 뽑아야 한다, 참으로 뜻이 깊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선외무성대변인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 참배를 규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담화 주체91, 4월 23일

지난 날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특급전범자들의 망령들이 도사리고 있는 야스구니진쟈는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때문에 전후 력대 일본당국자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행위는 침략의 과거와 군국화를 합리화하려는 위험한 책동으로 간주되여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당국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여 아시아나라들의 비발치는 항의와 규탄을 야기시킨바 있다.

일본총리의 이번 참배는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하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정면도전으로 되며 특히 지금 일본에서 벌어 지고 있는 군국주의적인 유사시관련법안채택 놀음과 때를 같이 한것으로 하여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직 일본총리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은 시기와 형식이 어떠하든 일본정부가 일본의 과거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고위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이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지난 날 침략과 해외팽창으로 망한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간다면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망치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 고이즈미, 야스쿠니신사 참배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21일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것은 군국주의망령을 몰아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참배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과거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일본당국자들은 물론 집권계층들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왔으며 참배하는 경우에도 개인자격의 명분을 걸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이 누구의 눈치를 봄이 없이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과거침략행위에 대한 죄의식감을 가지고 그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도 아니며 또 평화를 지향해서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는 복수심과 선행자들이 이루지 못한 대륙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일본 국민들 속에 군국주의적 **사상과 재침열기를 불어넣는 사상적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통해 일본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어 그들이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실현에 나서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침략에 필요한 무력증강과 전시법이행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역사왜곡행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고이즈미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와 결별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려 한다면 지난날의 침략역사를 전면 부정해 나서지 않을 것이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자들의 명목을 빌며 이빨을 갈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새 세기를 평화와 발전의 세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몸을 잠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략의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를 즉시 파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느때든 북을 반대하고 한반도를 타고 앉은 침략전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실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바뀌었지만 일본반동들의 침략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독사마냥 재침의 독을 내뿜으며 한반도와 아시아나라들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이 어제날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군국주의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사 참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

##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규탄 집회서, 경찰, 화형식때 강제 진압




≪태평양 전쟁때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체중이 70kg에서 40kg이 될 정도로 일을 하면서 (입에서) 피가래가 섞여 나왔습니다. 반항을 하면 (일본 군인들이) 총칼로 몸을 쑤시기도 했습니다.≫

일제때 강제 동원됐다던 오행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는 오 할아버지를 비롯해 흥사단,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말한 황금주(83) 할머니는 ≪19살 때 사립학교 졸업을 25일 남겨놓고 처녀 공출을 당했다≫면서 ≪2년이 지나면 고향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3년, 5년이 지나도 고향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황 할머니는 이어 ≪결국 8 · 15해방이 되어서야 일본군인 속옷을 얻어 입고, 먹을 것을 얻어먹으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오열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이수호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평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박인주 씨도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의 일본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라며 ≪한 · 일 공동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에 일본이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독도, 일본 교과서,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에게 적개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본 국회는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자위대 파견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이신철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최신 일본사≫ 교과서의 왜곡내용에 따르면 △독도 등을 자신의 영토로 최초 기술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 또는 ≪진주≫로 표현하는 등 전쟁 및 전쟁을 미화 △임나일본부설 강조 △고교 26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 없음 △명성황후 살해에 대해 ≪일본공사 미우라고로 등은 독단으로 민비를 살해≫라고 기술, 일본 정부 개입 부정 △침략 전쟁 호도와 은폐 등이 열거됐다.

한편 오후 1시 10분께 행사장에서는 주최쪽인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사이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최쪽은 당초 계획대로 ≪최신 일본사≫ 교과서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사진이 담긴 대형 깃발을 태우는 화형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로 집회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한 여성 회원이 몸을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왜 정부가 화형식을 못하게 하는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수란 기자
2002/04/22 오마이뉴스



# 한총련 이적성과 21세기

남북 화해 · 협력을 지향하는 시대에 이적성이란 말이 거슬리지만, ≪한총련≫이 현 실정법상 이적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조문문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되었을 때 ≪한총련≫의 평화통일운동은 적극화했고, 그 결과 1998년에 대법원은 그 제5기 의장 상고심 재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확정했다. 이유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 · 선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규정한 것은 6 · 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6 · 15 선언 이전에 정부가 적화통일안으로 간주한 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환영하고 지지한 6 · 15 남북공동선언은 남쪽 통일안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라는 단서를 붙인 북쪽 통일안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연방제통일안이 남쪽 사직당국에서 봐온 대로 적화통일안이냐, 세계사적으로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취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북쪽만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책이냐, 실질적인 평화공존책일 뿐이냐,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적 통일방안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라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다만 남북 한반도 주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6 · 15 공동선언이 나온 뒤에는 남쪽 사직당국도 ≪연방제안은 곧 적화통일안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일은 아니라 하겠다.

≪한총련≫은 6 · 15 공동선언 후 종래 주장했던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방안을 넘어 ≪6 · 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삼는다≫하고, ≪미제반대≫ 등의 표현도 강령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남북 정부가 각각 상당한 기간 외교권 · 군사권 · 내치권을 그대로 가지는데 합의한 (≪순수≫ 연방제와는 다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근거로 한 6 · 15 공동선언 식 통일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 학생운동은 항상 시대적 · 역사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왔다. ≪4 · 19 공간≫에서 시작하여 군사독재시대까지는 반시대적 무력통일론 및 흡수통일론에 반대하면서 옳은 의미의 평화통일론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다.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이 민간정부이면서도 평화통일정책이 벽에 부딪쳤을 때는 그것을 풀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했다. 6 · 15 공동선언에서 남 · 북 정부의 합의로 현실적 통일방안이 제시되자 종래의 ≪순수≫ 연방제 지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민족 중 베트남은 전쟁통일 했고 독일은 흡수통일 했지만, 한반도의 경우 20세기에는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되지 않았고, 통일문제는 21세기의 과제가 되었다. 21세기에도 20세기와 같은 전쟁통일 및 흡수통일 방법밖에 없을 것인지, 아니면 21세기적 방법이 새로 마련될 것인지 아무도 미리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다. 20세기적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 인식에만 한정된 기성세대가, 21세기적 평화통일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분명 20세기 냉전시대의 민족인식 및 통일인식에 한정된 산물이지만, 통일은 이미 21세기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평화통일의 완성 과정을 담당할 세대는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만든 기성세대가 아니라 ≪한총련≫과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다.

일제시대와 분단시대밖에 살아보지 못한 20세기 인간 기성세대가 그 민족인식 및 역사인식에 한정해서 만든 국가보안법 같은 것으로 평화통일시대를 담당할 ≪한총련≫과 같은 21세기 인간의 민족인식이나 통일방법론을 묶어두는 일은 불가능하다. 기성세대에도 그 불가능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겠는데, 아는 경우가 더 우세할 때 역사는 순조롭게 흐르게 마련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에서 풀 것인가, 묶어 둘 것인가는, 기성세대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전향적 민족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렸다고 하겠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2002/04/21 인터넷 한겨레

# ≪자유인으로 살것인가, 노예로 살것인가≫

##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

≪우리는 지금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이 18일 낮 12시 여의도 삼환까뮤 앞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보고 및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화를 위한 일반적인 투쟁은 물론, 노동자를 위한 생존권 투쟁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는 곧 ≪민주화를 가로막고, 노동인권을 부정한다는 의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이어 ≪이 투쟁이 민주화와 노동인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규탄연설에 나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정부는 누굴 위한 테러 예방이고,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미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확보하는 만큼 우리의 인권은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사의 경영간섭 반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전병덕(대우자판)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나라의 주권, 경제주권, 경제적 이익을 모두 빼앗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에 이어 매국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테러방지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고 미국과 현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민가협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결의대회에 참석해 규탄연설에 나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지난달 19일 김덕규 사회단체 대표들이 민주당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제2의 IMF가 오고, 월드컵도 치루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맞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진행된 단식농성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4일간의 단식농성기간 동안 민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단식농성 참여와 연대방문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통과를 일단 저지할 수 있었지만 아직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투쟁의 줄을 놓지 말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대우자판 노동자들과 공동투쟁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결의대회는 홍순석(한청)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이후 투쟁 계획과 관련, ≪오는 22일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다음주 중에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일정은 확인할 수 없어 정세를 좀더 보고 국회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정보위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 법안 제정에서 한발 물러선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4/18 통일뉴스

#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라≫

##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54개 단체, 정통부 앞 기자회견

정보통신부가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경 ≪글로벌 리더 e코리아 추진 전략보고≫ 행사를 열었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사 앞에서 ≪인터넷 국가검열제도 철폐≫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닌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해왔다≫면서, ≪인터넷 강국 한국≫의 후진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54개의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검열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검열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공대위 54개 단체들은 홈페이지에 등급을 달지 않을 것이며, 등급거부 운동에 시민사회 각계를 동참시키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 공동대표 김동민 교수는 ≪우리는 이제껏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강요받아왔으나, 인터넷은 대중들간의 의사소통과 우리들의 메시지를 위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고 침묵을 지켜온 민중의 주장이 자유롭게 오가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라며 ≪이 땅의 민중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 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온 것인 만큼 또 다른 검열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려던 공동대표들과 출입을 막는 경찰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장창원 공대위 운영위원장은 ≪국민으로서 민원을 내려 가는 것 뿐인데, 이를 왜 막느냐?≫면서 항의했다. 경찰은 얼마 후 공대위와 장관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길을 내주었지만 공동대표들은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선언문이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결국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인터넷 검열의 대표적 피해사례인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에 대하여 ≪현재 엑스존은 인터넷등급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작년 12월)과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올해 1월)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5월에 나오는 소송결과는 인터넷등급제가 위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윤이 민간자율기구가 아닌 정부의 위임을 받는 행정기구임이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2002/04/22 오마이뉴스



# 1300만이 하나가 되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4일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사수투쟁. 이 투쟁에서 단결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겁니다. 그럼 이번엔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김성용씨의 글 ≪1300만이 하나가 되자≫를 소개해 드리죠.



철도와 발전노조의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이 한참 계속되고 있을 때 전국적 범위에서 4시간에 걸쳐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강행되었다.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노조원 2만여명을 비롯해서 같은 시간에 기아자동차노조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3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조파업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이 4시간의 연대파업에는 무려 13여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13만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물론 이 연대파업으로 당장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공기업민영화반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크게 관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대파업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 노동자대중의 권익이 투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 투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 단결에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도 얼마든지 단결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결의 과시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으로 이 땅의 경제는 파산으로 줄달음치고 있고 우리 민중의 생활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대중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실직과 그로인한 가정파괴, 자살참극이라는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다주었다. 힘든 노동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힘들게 일해왔지만 차례진 것이란 뼈를 깎는 고통뿐이었다. 가진 것이란 빈 두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길도, 물러설 곳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들에게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정당한 삶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지키는 길은 투쟁밖에 없는 것이다. 또 투쟁 역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노동자들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투쟁이 곧 삶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대중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내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 한두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바로 단결이다.

1300만 노동대중이 하나로 똘똘 뭉친 단결의 힘만이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한번, 두번이 아니라 세번, 네번 계속 끊임없이 연대의식을 높여나가고 단결을 도모해 간다면, 이번 연대파업과 같은 그러한 단결의 과시를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간다면 능히 1300만 노동대중의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도 안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연대파업이 갖는 의미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연대파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다.

# 경찰청, 여성노조원 알몸수색 정당화

##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 · 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 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등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과장, 정보3과장과 1층 민원실 로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대표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자 수사과장은 ≪경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고 극악한 범죄자나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 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밀어내 기자회견 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원 기자
2002/04/20 인권하루소식



#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24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에 역행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미항전을 가열차게 벌여서 민족공멸을 막아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핵전쟁의 불구름이 솟아오를지 모를 정도로 매우 험악해지고 있어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해온 부시집단은 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규정하고 반테러전쟁을 한반도에로 확대하며 핵선제타격도 불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협은 내일의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적인 것으로 되고 있어요.

**사회자** :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전쟁을 바라지 않잖아요. 남과 북의 두 지역에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민족안에서 총을 맞대고 싸울 근거로 될 수 없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북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건 이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북의 자위적 국방력과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없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미국 호전광들은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렸을 겁니다. 정말 북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이고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민족공멸을 막아줄 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사실이 그렇죠. 이 땅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피해를 당할 사람도 우리 민족이고 잿더미로 될 땅도 우리의 삼천리강토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에 한한 문제도 아니고 북에 한한 문제도 아니며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관한 문제도 아니죠.

**유진명** : 이건 남과 북의 지역적 차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는 7천만 우리 민족의 전망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전쟁의 참화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미국호전광들이 성능무기로나 핵무기로나 북을 공격하면 북은 부득불 자위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들은 북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받아 불바다로 되고 말거예요. 결국 이 땅은 어차피 미군과 미군기지들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될거고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인 것으로 될 겁니다. 핵전쟁으로 전쟁의 화염이 깃든 잿더미위에서 사상과 제도를 논하고 소속과 당파를 가를 사람도 없을 거고 설사 그것을 논하고 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논의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이같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공멸을 막아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시기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미항전을 과감히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유진명**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배비돼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과 그것으로 장비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거세차게 높여나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 민중에는 벗도, 보호자도 아니고 침략자이고 전쟁의 억제력이 아니라 전쟁, 핵전쟁의 화근입니다. 나라안에 미국의 핵무기와 양키무리들을 두면 우리 민족은 **질 것도 없고 **질 것도 없구요, 재난밖에 당할 것이 없어요. 오늘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위험이 조성된 것도 이 땅이 미국의 핵기지로 되고 있기 때문이예요. 때문에 각계 민중은 이 땅에 배비돼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그것으로 무장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형태의 한미합동군사연습들은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핵전쟁의 근원으로, 민족공멸의 근원으로 되고 있잖아요.

**유진명** : 옳은 말씀이예요.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돼 있는 이 땅에서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이 강행될때마다 한반도에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어 민족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어요. 얼마전 미국이 이 땅의 최전연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대규모 한미통합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벌인 이번 전쟁연습에는 4만3000여명의 미군, 65만여명의 국군 등 도합 70만의 대병력과 최신예 첨단장비들을 총투입해 강행됐는데요. 이것은 핵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이고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이었어요.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이 땅에서 벌여놓고 있는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중지시키기 위한 반미항전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을 핵참화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각계 민중은 이 땅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을 영원히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하는거죠.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한미간에 체결된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모든 군사협정들과 조약을 폐지시키기 위한 투쟁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한미간에 체결된 이른바 군사협정들과 조약들은 다 미국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서예요.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은 물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모든 침략적인 군사행동들이 한미간에 체결된 이른바 군사협정들과 조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민중은 한미간에 체결된 모든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군사협정들과 조약들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야 할겁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반미항전으로 민족공멸을 막아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8일～19일




청년학생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한반도전체를 저들의 세력권에 끌어들이는 것을 관건적인 고리로 내세우고 북침을 겨냥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대량살상무기판매국이니 하는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부시의 서울행각, 연이어 휴전선일대에서 근 70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된 속에 전개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북을 주되는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작성, 부시의 연이은 ≪악의 축≫망발.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북침핵전쟁시간표를 정밀하게 짜놓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 모두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안전은 우리 민족자신이 수호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품고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내달릴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 쉼없이 더욱 줄기차게 타오르는 투쟁의 불길로 미국의 핵전쟁야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운동권인사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산하는 좌담회를 갖고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전망성있게 계속 밀고나갈데 관해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오늘의 이 격동적인 현실을 바로 알고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해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반전운동의 불길을 쉬임없이 지펴올림으로써 말그대로 온 이남땅을 반미함성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해야 합니다.

반미반전운동은 한갖 시류를 타고 전개되는 시한적 운동도, 주기적으로 출몰하고 주위환경에 따라 고조되는 감정적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동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벌여 반드시 알찬 열매를 맺자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들로 하여금 반미반전운동이 그들의 사활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는 걸 똑똑히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결코 북에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간악한 흉계의 집중적 발로라는 것, 미국이 북에 불질하면 부득불 북은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이남은 미국때문에 전쟁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6.25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국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 견결하고 완강한 반미반전투쟁으로 미국의 북침야망을 분쇄하는데 전쟁의 발발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6.15공동선언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각계 민중들 속에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반미반전운동에 동참해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지금 사회각계에서 벌어지는 미군기지반환투쟁, 한강독극물사건관련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 양민학살진상규명투쟁 등에 적극 동참하며 그 모든 투쟁들이 반미반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지도록 하는데로 지향되도록 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투쟁의 현장들에서 침략자, 약탈자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더욱 낱낱이 까발리며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겨레에게 더욱 참혹한 핵참화를 덮씌우려 하고 있는데 관해 잘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각계 민중 모두가 외세가 강요하는 민족수난의 역사, 뼈아픈 고통과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미반전운동에 나서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분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운동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는 것과 함께 투쟁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미국의 북침책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자는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북침광풍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난 부시방한반대투쟁때 벌였던 그림자투쟁과 동시다발집회와 같은 교훈 높은 투쟁방법들을 더 많이 창출구사하며 부시방한반대연석회의와 같은 조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학원자주, 민족자주쟁취를 위한 백만학도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반미운동투쟁을 전개했던 것처럼 집중투쟁들과 공동연대집회들을 더많이 벌이고 미국상품불매운동과 같은 다채로운 운동들을 더많이 전개해야합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북침전쟁시간표까지 짜놓고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불집을 터뜨리기 위해 획책해도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벌여나가는 반미반전운동에 부딪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겁니다.

# 반미는 노농운동의 주요과제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21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단체들 앞에는 생존권투쟁과 함께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연초부터 ≪악의 축≫이요 뭐요 하면서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지난 2월에는 호전광부시가 잇따라 날아들어 주한미군과 장시간 전쟁모의를 한데 이어 3월 21일부터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대량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인 것만 봐도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덮쳐들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이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한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민족전멸책동입니다.

핵전쟁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예요.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핵참화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터진다는 건 민족이 공멸한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 패권주의 야망실현에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때문에 노농운동앞에는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한반도에 무겁게 드리운 핵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기 위한 반미투쟁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미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은 민족적 숙원이며 성업이죠. 우리 민중의 통일기운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으며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 나서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회창과 같은 냉전수구세력들을 사주해 계속 이북을 주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보법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떠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북침전쟁열을 올려 화해와 단합,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한반도의 정세를 분열과 대결,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50여년동안 미국때문에 분단의 비극을 겪어온 것만해도 통분할 일인데 이제 더이상 미국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까지 능욕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농대중은 6.15공동선언을 차단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가열찬 투쟁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겁니다.

반미가 현시기 노농운동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로 되는 건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을 분쇄하고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미군의 ≪한국≫강점이후 체계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켜온 미국은 지금 이 땅에 경제명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근로민중의 생존수단, 생계터전을 빼앗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광풍은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하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맨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존수단을 잃는다는 것, 이건 곧바로 가정의 파탄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겨우 밥통이 붙어있는 노동자들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생명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와 같은 불공정무역을 강행해서 이 땅의 모든 시장을 개방시켜 놓음으로써 농어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어요. 이처럼 미국의 악랄한 식민지경제수탈책동으로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도탄에 빠져들고 근로민중은 생사기로의 벼랑턱위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노농대중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노농대중이 강요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미국의 ≪한국≫지배와 예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노농대중은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이 땅의 자주성과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민주민권쟁취, 조국통일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반미투쟁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이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투쟁일정알림≫

# 향후 FX공동행동 실천계획

**1. FX 외압의혹 진상 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 의의 :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범국민적인 여론 조성
- 방법 :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범국민 서명 선전전과 단체회원들 서명 병행
- 일정 : 5월 초까지 집중하여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전달

**2.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대중집회**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를 위한 대중적 압박 전개
- 방법 : 청와대 앞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지속적인 대중집회 개최
- 일정 : 4월 27일(토), 4월 30일(화), 5월 3일(금), 5월 4일(토)

**3.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연속 1인 시위**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각계각층의 반대여론 행동 표출
- 방법 :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시민, 사회, 여성, 종교 단체 등 연속 1인 시위
- 일정 :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역분 : 4월 24일(수) - 70년대 민노회, 민주노동당, 4월 25일(목) - 참여연대, 4월 26일(금) - 사회당, 4월 27일(토) - 민중연대, 4월 29일(월) - 평통사, 4월 30일(화) - 전국연합, 5월 1일(수)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5월 2일(목) - 여성단체연합, 5월 3일(금) - 자통협, 5월 4일(토) - 환경운동연합

**4.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연속 신문광고**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각계 시민사회단체 반대여론 표출
- 방법 : 각계각층 1천인 선언을 필두로 각계 사회단체들이 연속 신문광고 게재

**5.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 의의 : 납세자인 국민들의 공분을 직접 행동으로 조직화
- 방법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참가자 서명 등을 받아 추진

**6.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사회원로 선언**
- 의의 : 사회 지도층인 사회원로의 선언으로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압박
- 방법 : 이영희 교수 등 사회원로 선언 발표

**7. 김동신 국방장관, 최동진 획득실장 파면 및 구속수사 촉구 시위**
- 의의 : F-15K 선정 주무 담당자에 대한 국민적 심판
- 방법 :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 및 다양한 시위 전개

**8.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사이버 시위**
- 의의 : FX 외압의혹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조직화
- 방법 :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메일 집중 발송
- 일정 : 4월 25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전개 예정

2002/04/25 FX공동행동

# 겨레사랑 선군길이여

자국자국
가슴에 새겨 봅니다
걸음걸음
경향이 받드옵니다

총대를 앞세워
군대를 앞세워
**김정일**장군님 몸소 헤쳐가시는
선군길, 선군길!

장군님 이 길에 계시여
우리 마음 산악처럼 든든합니다
≪북침≫을 짖어대는 미군기의 굉음도
모기소리만큼이나 가소롭습니다

장군님 이 길을 걸으시여
남해도 파도쳐 환호합니다
태택산 한라산도 키돋음하고
이남민중 그 길을 우러릅니다

아, 이북만이 아니라
이남도 지켜주는 분이여서
한반도를 한품에 따뜻이 안으시며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길이여서

자주의 활로를 열어주는 길
평화의 봄빛을 안겨주는 길
통일의 새날을 밝혀주는 길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길

겨레사랑 층층히 쌓여
이 길에 우뚝 솟아오르는 것은
정녕 통일의 금자탑입니다
천만년 길이 빛날 **김정일**조국입니다

## 주체91 4월 18일

통일연대는 1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6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일본당국이 역사를 심히 왜곡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냈습니다.

한총련은 12일부터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3일간 일정으로 제10기 대의원대회를 가졌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시대와 역사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가 1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제8권 계승본이 10일 네팔에서 출판됐습니다.

## 주체91 4월 19일

서울에 사는 연예인 최영미씨가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고 한다. 해마다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피부와 언어가 다른 세계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위인상을 노래와 춤으로 칭송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 이 환희로운 축제에 우리 이남 연예인들도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가수 김연자씨가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서 공연한 장면, 그녀가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뵙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녹화물을 보여준 다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정일**영수님께서 김연자씨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면 볼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영수님은 참으로 소탈하시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나도 영수님을 모시고 평양무대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봤으면 원이 없겠다. 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13일 남북단체공동성명을 지지해 성명을 냈습니다.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이의 협의가 18일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역사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해 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한 것과 관련해 독도향우회 등 17개 단체소속 300여명은 13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4.19봉기 42주년을 맞으며 각계에서 4.19의 기개를 되살려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문규현신부 등 시민단체대표 8명은 18일 오후 국방부는 ≪F-15K≫전투기선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주변에서 집회를 한 사람들을 연행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각급 조직들에서 기념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의 주최로 4일 미국 뉴욕에서 보고회와 사진전이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함성국 회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함성국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총대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시어 조국광복을 이룩하신데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주석님은 겨레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고 주석님의 역사가 세기를 이어 영원히 흐르도록 하셨다면서 그는 그분께서 노숙하고 세련된 선군영도를 펼치시어 조국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계시는데 대해 말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주석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한편 재미동포중남부지역연합회,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가 미국 시카고와 로스엔젤레스에서 각각 태양절기념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15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기념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심양주재 이북 문영근총영사와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최성산부의장, 총연합회 산하 조직대표들, 12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문영근총영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민중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융성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석님은 우리 민중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부강하고 융성번영할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한편 태양절에 즈음한 영화감상회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이사장일행,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일행,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몽골 백두산협회 대표단, 우크라이나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인 우크라이나주체사상연구협회 부위원장, 핀란드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인도네시아주체사상연구대표, 스리랑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일본**김정일**저작연구회 전국연락협의회대표단, 네팔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덴마크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인 덴마크**김정일**저작연구소조 책임자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일본**김일성**주의 연구회와 일본주체사상연구회전국연락회, 태국사회발전조정센터와 태국전국연구이사회에서 공동명의로 된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이 해당부문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8일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이북 예술인들과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성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현시대와 민족미술발전에 관한 미학토론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 주체91 4월 20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19일 새로 발굴정리된 송암동굴을 돌아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제31차 미국 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서총련의장 정종성씨와 조국통일위원장 박공기씨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총련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가 지방선거에 조합원을 대거 출마시키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세대전투기사업 외압의혹진상규명과 ≪F-15K≫내정철회공동행동은 19일 오후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차기전투기로 ≪F-15K≫를 선정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련, 국제공동노련과 공동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며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등의 구속문제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9일 오전 규장각앞 공터로 4.19기념탑을 이전하고 4.19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회창이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규선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쿠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대표단,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대표단, 이집트예술문화공보협회 총서기, 에콰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가족, 라틴아메리카기자연맹전 서기장가족, 불가리아**김일성**도서실 책임자가족, 몽골전조선***** 일군가족, 이북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부위원장, 예멘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중국조원양식공사총경리 가족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김일성**명칭 전국벨라루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우협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네팔전국위원회, 태국 최고행정재판소, 몽골 조선친선협회,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페루위원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몽골백두산협회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이북을 방문한 조선민중과의 친선 및 연대단체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 인사들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이룩하신 업적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 참가자들이 **김정일**영도자님께 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발표 10돌기념 평양시군중집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8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에서 기념방송을 했습니다.

라오스 국가라디오방송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내보내고 위대한 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민중중심의 혁명**를 마련하신데 대해 전했습니다.

8일 이집트의 카이로방송은 ≪조선은 태양절을 기념한다≫라는 제목으로 특별방송을 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의 ***TV는 이북 영화 ≪조선의 새모습≫을 방영했습니다.

## 주체91 4월 21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시리아아랍사회부흥당 및 민족진보전선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불가리아공산당 제1서기가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따쥐끼스딴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불패의 활력을 칭송하는 글발이 이북의 명산인 수양산 자연바위에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주체91. 4. 25≫

해주시 수양산 매봉 자연바위에 새겨진 이 글발 한자의 높이는 21미터, 너비는 10이며 획의 너비는 2미터, 깊이 1미터입니다.

글발은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영도자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영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군대와 민중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 선군시대 또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입니다.

수양산 매봉 자연바위에 새긴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글발 제막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와 황해남도 당위원회 김은규책임비서 등과 해주시내 각계 민중들이 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제막사를 정하철비서가 했습니다.

그는 수양산 매봉 자연바위에 새긴 글발은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기리 전해갈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지적하고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위에 일심단결해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구호를 높이 부르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글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